

1992年度  
統一顧問會議 結果報告書

統 一 院



# 目 次

I. 統一顧問會議 設置 및 構成·運營 .....	3
II. 統一顧問會議 運營實績 .....	7
1. 顧問會議 開催.....	9
2. 海外僑民과의 對話活動(海外視察) .....	67
3. 國民과의 對話活動(地方視察) .....	85
III. 統一顧問會議 運營成果.....	97
※ 附 錄 1. 統一顧問 名單 .....	103
2. 統一顧問會議規程.....	107



# I. 統一顧問會議 設置 및 構成 · 運營



# I. 統一顧問會議 設置 및 構成 · 運營

## 1. 目 的

統一에 關한 超黨的, 汎國民的 意見을 綜合하고, 國民의 平和統一 意識을 鼓吹 宣揚하며, 效率的인 統一政策을 協議하기 위하여 設置

## 2. 根 據

統一顧問會議規程(大統領令 第13269號, 1991. 2. 1)

## 3. 機 能

顧問會議는 다음 各號의 事項을 審議함.

- 統一에 關한 國民 各계 各층의 意見 綜合
- 國民의 平和統一 意識을 鼓吹 宣揚하기 위한 方案
- 統一에 關한 諸般政策 및 方案의 研究 造成
- 國內 및 國外的 統一促進活動의 造成을 위한 方案
- 기타 統一과 關聯된 問題로서 國家政策上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事項

## 4. 構 成(發足 : 1969. 5. 27, 許政 顧問外 35명 委囑)

- 議長 1人을 包含하여 60人 이내의 顧問으로 構成하며, 議長은 顧問 中에서 互選하고, 顧問은 學識과 德望이 있는 社會 各界 代表者 中에서 統一院 長官의 提請으로 國務總理를 거쳐 大統領이 任命 또는 委囑함.

— 顧問現員 : 43名

— 現 顧問會議 議長 : 閔 寬 植

5. 任 期：4年

6. 議長の 職務

- 會務를 統理하고 顧問會議를 代表함.

7. 會議召集

- 顧問會議는 議長이 召集하고, 議長이 그 會議를 主宰함.
- 顧問會議는 定期會議와 臨視會議로 區分하며, 定期會議는 1年을 4等分하여 每分期 1回, 臨時會議는 議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때에 召集함.

8. 幹事長 및 幹事

- 幹事長은 統一院 次官이 되고, 幹事는 統一院 所屬公務員 중에서 統一院 長官이 任命함.
- 幹事長은 顧問會議의 事務를 處理하며, 幹事は 幹事長을 補助함.

9. 研究委員

- 統一院 長官은 統一 問題에 관한 學識과 經驗이 풍부한 者 중에서 7人 以下の 常任研究委員과 150人 以下の 非常任研究委員을 委囑하여 特定 事項을 調査研究하게 할 수 있음.

10. 禮 遇

- 會議에 出席한 顧問에 대하여는 豫算의 範圍 안에서 手當을 支給할 수 있음.
- 常任研究委員과 非常任研究委員에 대하여는 豫算의 範圍 안에서 手當과 旅費를 支給할 수 있음.



## II. 統一顧問會議 運營實績



## Ⅱ. 統一顧問會議 運營實績

### 1. 統一顧問會議 開催

#### 〈 第 1 次 會 議 〉

##### (1) 會議概要

가. 日 時 : 1992. 7. 29(水), 11:30~14:00

나. 場 所 : 63빌딩 튜올림룸 (58층)

다. 參 席 : 顧問 22名

金命潤, 金榮禎, 金玉烈, 金字中, 金元萬, 金判述

金賢子, 朴東鎭, 朴贊兢, 宋南憲, 慎道晟, 吳綠園

李相敦, 李忠煥, 李兌榮, 李亨根, 張盛煥, 鄭海永

鄭憲柱, 趙淵夏, 韓豹頊, 洪性澈

※ 院內(4명): 副總理, 次官, 統一政策室長, 第3政策官

라. 報告事項 : 最近 南北韓關係 現況

## (2) 會議內容

### 【副總理 人事】

- 副總理로 就任한 이래 統一顧問님들을 한분 한분 찾아뵙고 人事를 드리고 高見을 듣는것이 道理인데 여러사정으로 그러지 못하였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함.
- 금년들어 顧問會議를 開催하지 못하였다는 報告를 듣고 상당히 놀랐음.  
顧問任期가 4年으로 되어 있으며 이에 해당되는 顧問이 상당수 있어 留任 또는 交替가 되어 하는데 前任 副總理께서 規程에 의해 추천하시고 大統領께서 委囑하신 후 顧問會議를 開催할 計劃이었던 바 人選作業에 시간이 걸려 前半期에 회의를 하지 못해 統一院으로서도 안타깝게 생각하였음.
- 南北關係는 신문지상을 통해 잘 아시고 계시겠으나, 基本合意書, 韓半島 非核化宣言 등이 지난 2월 19일 發效가 되었음.
- 南北基本合意書를 만들기 전까지와 基本合意書가 發效된 이후에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附屬合意書를 만들기 위한 分科委員會를 포함하여 南北間 大·小會議가 그간 77번이나 있었고 그외에 南北連絡事務所가 설치되어 매일 아침·저녁의 通話 등을 포함하면 150회까지 이르렀음에도 그간 報告를 드리지 못하여 죄송하게 생각하며 앞으로 顧問이 委囑되고 議長이 결정되면 빠른 시일내에 다시 顧問會議를 개최하고자 함.

## 【次官 人事】

- 금년초에 統一院 次官으로 부임했지만 人事를 못드려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顧問會議 幹事長으로서 앞으로 여러 顧問님들의 高見을 統一政策, 南北會談 戰略에 적극 反映하도록 努力하겠으며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 【最近 南北韓關係 現況報告】

## 【討議 및 諮問】

### 李 相 敦 顧問

- 副總理께서 顧問會議를 開催하지 못하였던 사정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7개월만에 늦게나마 會議가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함.
- 한가지 궁금하게 생각하는 점은 작년 崔浩中 前 統一院 長官이 靑瓦臺에 統一費用으로 2000억~4000억 달러가 든다고 보고했다는 것이 新聞에도 발표되었는데, 89년 독일의 경우 東·西獨 統合에 600억 달러가 소요되었다고 함.
- 독일같은 부강한 나라도 600억 달러는 부담이되며, 이는 獨逸 總生産의 4%밖에 안되는데도 國民들의 상당한 반발을 사서 選舉에서 콜 수상이 고전을 하였다고 하는데 2000억 달러만 해도 우리나라 總生産에 맞먹는 것으로 우리나라가 2000억~4000억 달러를 統一費用으

로 부담할 수 있는지 궁금함.

- 한나라의 與野간에도 對話가 잘 안되는데 異質的인 金日成과 對話가 되겠는지 의문임. 南北關係에 있어 離散家族問題가 重點이며 離散家族問題에 北韓이 誠意를 보이는가가 중요함.

統一을 하려면 離散家族 自由往來가 되어야 하며 서울, 평양에서 만나는 것은 면회에 불과한 것임.

- 金達玄 副總理가 大統領 面談時 봉투를 꺼내 親書인가하여 긴장하였다는 얘기가 新聞에 실렸는데 金日成이 親書를 보내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親書를 보내더라도 새로되는 大統領에게 보낼 것임.
- 統一問題에 있어서는 野黨도 黨利黨略을 버려야 하며 國家聯邦制 등 안될 소리를 野黨이 하면 안될 것임.

#### 洪性澈 顧問

- 平統首席副議長으로서 전국적으로 많은 平統諮問委員들을 접촉하고 있으며 또한 많은 以北道民들을 접촉하고 있어 그분들이 원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음.
- 90년 統一院長官 在職時節과 지금을 비교해보면 그 당시는 東西獨統 합의 영향때문인지 상당히 性急한 統一論이 팽배하여 東西獨도 統一되는데 양보할 것은 양보하여 統一의 길을 열자는 意見과 金日成과 妥協이 되겠느냐는 意見으로 兩分되어 있었음.
- 그러나 근자에는 南北問題는 힘든것으로 천천히, 신중히, 그리고 점진적으로 原則을 지키며 해야한다는 國民들의 컨센서스가 形成되었다고 보며 이는 다행한 일로 생각함.

이러한 原因은 國民들이 北韓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알기시작 하였다는 데에 기인한 것임.

- 南北對話를 하는데 우리는 原則을 지키면서 해야하며 그러한 原則들은 自由民主主義를 지킨다는 것, 우리의 主權이나 主張을 지키는 것, 그리고 國際的 慣例 등이 尊重되어야 한다는 것 등임.
- 구체적으로 南北問題에 있어 政府도 對策方向에 包含시키고 있지마는 核問題 解決없이는 實質的인 協力 등의 進展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며, 離散家族問題가 초미의 中心的인 人道的課題로서 이러한 두가지 原則이 지켜져야 할 가장 重要的 原則으로 생각되는데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는게 아니냐하는 기우를 느낌.
- 核問題의 解決이란 同時查察을 意味하는 것이며, 具體的이고 實質的인 進展은 經濟的 協力を 意味하는 것으로 國民은 理解하고 있는데, 20일 板門店에서 개최된 核共同委員會에서 북쪽은 1차·2차에 걸친 IAEA 查察을 통해 北의 核不在가 명백하게 알려졌으므로 오히려 查察을 할 곳은 남쪽이라고 주장하고있어 核 同時查察問題는 거의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다음 離散家族問題로서 金達玄이 온 다음날의 赤十字會談에서 북측은 과거의 李仁模 問題와 核 연결문제에서 오히려 포커스렌즈훈련 문제까지 더 強硬한 條件을 내세웠는데 이에 대한 우리의 對應이 옳은 것인지 의문임.
- 金達玄 副總理의 訪問과 核問題 및 經濟協力問題가 어떻게 連繫되는 것이며, 金達玄의 訪問이 總理會談의 南北和解·交流 테두리안의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 政府가 하는 모든일이 國民의 理解와 支援을 받아야 하는데 金達玄의 訪問에 대한 충분한 說明이 있어야 하며, 崔珏圭 副總理의 招請에 의해서 訪問하였다는 것 만으로는 國民이 納得하기가 어려운 것임.
- 金達玄이 記者會見을 통하여 수차례 “우리가 온 것은 核問題와는 전혀 관계가 없고, 여기와서 어떤 사람에게서도 核問題는 들은 바가 없다” 고 얘기했는데 金達玄은 그렇게 얘기했더라도 우리 政府로서는 당당하게 우리 政府의 方針은 이렇다고 하여야 國民이 納得할 수 있을 것임.
- 金達玄은 남포工團問題를 合意했다고 했는데 우리는 合意를 한 일이 없으므로 우리 政府로서는 眞相이 어떻게 된 것이라고 분명히 하여야 함.
- 崔珏圭 副總理가 訪北한다는데 우리의 原則이 核問題와 離散家族問題를 優先順位로 갖고 있으며, 이것이 解決되지 않고 있는데 崔副總理의 訪北이 옳은것인지, 옳다면 國民에게 어떻게 說明하고 納得시켜 오해없이 따라올 수 있도록 할 것인가가 重要하다고 생각함.

#### 李 亨 根 顧問

- 統一顧問會議의 획기적인 強化와 改善이 있기를 바라며, 현재 國民의 가장 큰 관심사는 北韓이 核을 갖고 있고 核能力을 갖고 있다는 사실임.  
北韓의 核存在는 日本이 가장 경계하는 일이며 美國으로서도 전략상 경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임.



- 金達玄 副總理의 訪問이 얼마나 效果가 있는지의 評價는 대단히 어려우나 그가 訪問하여 우리 國民의 最大關心事인 核問題는 전혀 언급없이 순전히 經濟問題만을 보고 듣고 얘기를 나누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볼 必要가 있음.
- 韓半島 平和定着을 위한 관건은 IAEA에서 合意되고 指定된 것의 查察이외에 의심나는 곳은 언제든지 強制로 查察할 수 있는 特別查察이 可能한 가에 달려 있음.
- 北韓의 對南赤化의 基本戰略은 비록 戰術面의 變化는 있을지언정 지금 이순간까지도 전혀 變化하지 않고 있는 것임.  
北韓의 最大關心事는 經濟建設에 있는 바 우리는 성급한 統一政策 推進을 삼가하여야 할 것임.

#### 李 忠 煥 顧問

- 核問題, 離散家族問題의 解決이 가장 重要하며 國民의 關心事인데 이의 解決없이 經濟問題를 선행한다면 國民이 政府의 統一政策에 대해 불안과 의구심을 가질 것임.
- 日本이 北韓과 北京에서 會談시 核問題 解決없이는 經濟問題 등 아무것도 안한다는 태도를 명확히 하고 있음에 반해 우리가 北韓과 折衝하는 것을 보면 核問題를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불명확함.
- 남포工團의 示範事業을 核問題 解決없이 하자면 國民感情이 용납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며 大選이 끝날 때까지는 南北會談을 당분간 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함.
- 離散家族問題 解決없이 공장 등을 視察하는 것은 統一에 도움이 되

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高位級會談과 기타 여러가지 南北會談은 統一院이 主管하여야 하는데 현재 統一院이 어느정도 主管하고 參與하고 있는지 궁금하며 새로 취임한 副總理가 보다 積極的으로 임해주기 바람.

### 【副總理 答辯】

#### ○ 統一費用 問題

- 統一費用 2,000억~4,000억불 問題를 前任 長官이 大統領께 報告하였다면, 이는 外國研究機關이 南北韓의 經濟的·文化的 比較를 통해 산출해 본 假說的 結論이 紙上에 報道된 바 있는데 어떤 기관이 統一費用으로 얼마를 算出하였다는 내용을 보고한 것일 것임.
- 현재 政府가 統一費用이 얼마 所要된다고 精確하게 算出하여 公表한 바 없음.
- 공식적으로 南北協力基金을 만들고 있는데 작년 250억, 금년 400억, 도합 650억원이 마련되었음.  
그중 一部는 使用했으며, 최소한도 3,000억원을 마련할 計劃이나 計劃대로 될 지는 의문임.
- 統一協力基金을 마련하려는 뜻은 經濟交流가 進展될 경우 수출입 은행, 장기신용은행, 산업은행 등에서 하고 있는 延拂輸出, 長期低利融資를 필요로 하는 製造業分野의 搬入搬出時 政府가 이를 支援해주기 위한 것임.

○ 離散家族 自由往來問題

- 離散家族問題, 核問題 등이 重要하며 급선무라는 지적에 동감하며 政府로서도 離散家族 再結合 事業이 가장 重要하다는 인식하에 最善을 다하고 있음.
- 離散家族중에서 餘生이 얼마남지 않은 高齡이신 분들을 위해 離散家族 老父母 訪問計劃이 合意되었음.
- 우리는 서울·평양이 아닌 故鄉訪問을 強力하게 主張하였으나 이를 고집할 경우의 무산 우려때문에 서울·평양에서 만나는 것으로 合意되었다는 점을 理解하여 주시기 바람.

○ 金達玄 北韓副總理 親書與否問題

- 金達玄 副總理의 訪問초기부터 親書與否가 論難이 되었으나 올 때부터 親書는 가지고 온 바 없었으며, 내려오기 전부터 실무자들간에 親書는 없는 것으로 얘기되었고 記者들에게도 이를 확인하여 준 바 있음.

○ 超黨的인 統一政策 推進問題

- 統一問題에 대하여는 黨利黨略이 없어야 하겠다는 점에 전적으로 同感하며, 與野를 超越해서 統一問題가 推進되어야 한다는 점에 확고한 信念을 가지고 있음.
- 이를 위해 취임후 民主黨 金大中 代表, 國民黨 鄭周永 代表에게 人事도 드릴겸 南北關係에 대한 協調 要求를 한 바 있음.

○ 核 相互査察問題

- 南北會談은 서두르지 말고 原則을 지키면서 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며, 이런 뜻에서 核 相互査察에 어떤 結論없이 經濟協力の 實質的 進展은 없을 것임을 분명히 함.
- 이 문제는 大統領께서 金達玄 副總理를 面談하였을 때도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對外的으로도 公表를 하였음.
- 제주도의 全經聯主催 세미나에서도 이러한 점을 強調하였으며, 25일 金達玄과 午餐時에도 여러 사람이 듣는 데에서 核問題를 계속 말하는 것이 워정자들이 政治的인 理由에서 會談을 안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하면 큰 誤算이며, 核問題는 韓民族만의 問題가 아니라 國際的인 問題이기 때문에 北에 돌아가서 워정자들에게 이 점을 분명히 傳達하여 달라고 하였음.
- 또한 南에서의 核恐怖는 거의 무해한 原子力發電所 建設에 대한 國民들의 反對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北의 核保有與否를 우리 國民들이 용서 안할 것임을 분명히 함.
- 北의 플루토늄 生産施設, 再處理施設에서 방사선 누출사고가 발생한다면 반경 500km이내에는 피폭이 되는데 南北韓은 물론이고 中國, 日本 등도 다 核의 영향권에 들어가기 때문에 南北 核 相互査察問題는 日本, 美國과의 國交正常化뿐만 아니라 EC, G7, ASEAN에서도 강력히 要求하고 있음을 설명하였음.

○ 對北 經濟協力 및 示範事業問題

- 물건을 사고 팔고 直去來를 하는 狹義의 經濟交流 외에 南北間의

本格的인 經濟協力을 위해서는 示範事業이 필요하고 이에 앞서 feasibility study가 필요한 것임.

- 그러나 거듭 얘기되지만 政府의 內部的 方針은 核問題 解決없이는 示範事業도 안하는 것으로 뜻을 박고 있으며, 다만 妥當性 調查事業은 조사결과 타당성이 없다고 하면 그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責任이 없는 것임.
- 調查團이 破綻되고 核問題에 대한 解決이 있게 되어 經協問題가 본격적으로 論議될 단계에 이르면 南北高位級會談의 經濟協力共同委員會, 附屬合意書를 실천하게 될 共同委員會가 만들어지게 되며, 交流·協力 分科委員會를 經濟協力共同委員會, 社會文化協力共同委員會의 둘로 나누어 執行을 담당하게 될 것임.
- 그후 經濟協力共同委員會에서 妥當性調查를 共同으로 실시하고 결정하도록 內部方針이 정해져 있음을 金達玄 씨에게 분명히 전달한 바 있으며, 崔珏圭 副總理도 이 점을 누누이 說明한 바 있으므로 基本原則에 위배되는 일은 조금도 없었다는 점을 꼭 理解하여 주시기 바람.
- 離散家族 再會가 經協의 條件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것은 南北合意書가 되든 안되든 무조건 꼭 해야 할 일로서 생각하고 있으며, 北이 세가지 理由를 들어서 당초에 合意된 離散家族問題를 끌고 있는 것은 우리들 판단으로는 하나의 戰術이지 안하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음.

○ 崔珏圭 副總理의 訪北時期問題

- 崔珏圭 副總理의 訪北과 調查團을 보내는 時期問題에 대해서는 아직 決定된 바가 없음.
- 老父母 訪問團의 실현이 이루어지지 않는 속에서 調查團이 간다면 이에 대한 批判이 있을 수 있으며, 또 崔珏圭 副總理의 訪北도 가서 무얼하느냐 하는 얘기가 분명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북과의 約束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언제 가겠다는 얘기는 아직 한 바가 없으므로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時期만은 政府에서도 신중하게 檢討할 생각임.

○ 金達玄 副總理 訪問評價

- 金達玄 副總理를 이번에 招請한 것은 잘한 일로 생각하고 있음.  
그동안 수차에 걸쳐 南北高位級 人士, 體育人士 등의 내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訪問團을 접해보고 그들이 한국실정을 별로 알지 못하고 있어 매우 놀랐음.
- 예컨대 이번 訪問期間중 일요일 롯데월드백화점 시찰때 백화점내의 많은 인파를 보고 상공부 차관을 오래했고 經濟에도 밝은 정운업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동원을 하니까 우리들이 안오려고 한다”는 얘기를 하였음.
- 그런데 정운업이 産業視察을 마치고 靑瓦臺에서 午餐이 있기전 같이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남쪽 실정을 잘못 알고 있었다고 실토를 하였음.
- 그는 북쪽에서는 남쪽에서 하는 모든 일이 組織하고 動員해서 하는

일인줄 알고 있었으며, 서울만 외국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고층빌딩이 있는 줄 알았는데 구미, 경주, 부산 등 地方도 매우 發展한 것을 보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것이 틀렸다는 것을 얘기하였음.

- 그는 노골적으로 자기들이 얼마나 落後되어 있으며 왜 이렇게 되었는가를 솔직하게 是認하였음.

그는 자기들이 지나치게 平等理念만 생각하였지 人間의 本能과 競爭을 통해서 能力이 發展하고 成長해 간다는 사실을 無視한 結果임을 自認하고 당신들은 잘 살고 우리들은 落後하였으니 도와달라는 부탁을 공공연하게 하였음.

- 지금까지 南北會談 등을 하면서 그들이 자기밑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무얼 부탁한다든가, 잘 봐달라든가 하는 경우를 전혀 보지 못했는데 金達玄 副總理가 大統領 閣下와 오찬시 “각하, 아주 잘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정말 協力을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남포공단 꼭 되도록 각하 좀 봐 주십시오” 하고 네번이나 부탁을 하였음.

- 金達玄 副總理는 이번에 직접 와서 보고 남쪽의 工業化에 정말 놀랐음을 얘기했는데 金達玄 副總理의 訪問意義는 첫째, 그가 누구보다도 남쪽의 事情을 잘 알게 되었다는 점. 둘째, 지금까지 이북의 基本的인 方針이 經濟協力도 완전히 우리를 교란시키기 위한 作戰이었으며 우리 政府는 돌려놓고 우리 企業人들간의 競爭을 통해 어부지리를 얻자는 것이었는데 이번 訪問을 통해 우리 政府의 協調없이는 아무것도 안된다는 점을 확실히 깨달았다는 점. 세째, 金達玄 副總理가 核問題 解決없이는 무슨 문제든지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느꼈다는 점이며, 이 문제에 대해 여기서 보고 들은대로

그대로 솔직하게 金日成 주석 앞에서 전해 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金達玄 副總理의 訪問은 나름대로 상당한 意味가 있다고 좋은 評價를 하고 있음.

○ 北韓의 對內事情

- 북의 對南赤化統一方針이 아직 변하지 않고 있으며 北의 最大關心은 經濟建設이라는 데 공감하며 北으로서는 經濟問題가 대단히 급하여 하루 두끼먹기운동, 어린애들 일찍자기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는 실정임.
- 北韓이 시급히 經濟協力問題 解決을 위해 우리 政府의 도움없이는 美國, 日本과 交渉 成果를 거두기 어려우며, 또 남쪽이 그들을 도와줄 能力이 있음을 認識하게 됨에 따라 우리로서도 南北對話를 꾸준히 계속하여 혹 자포자기에서 비롯될 수 있는 불장난을 막는 한편 그들의 사정을 잘 活用할 必要가 있다고 생각됨.

○ 統一政策 推進體系

- 統一政策에 관한 중요한 戰略은 모두 統一院에서 管掌하고 있으며 다만 統一院의 人力과 情報에 限界가 있어 이에 대한 支援을 外部에서 받고 있음.
- 金達玄 副總理를 招請하는 問題도 統一院長官 名義로 할 것인지 아니면 經濟副總理 名義로 할 것인지를 檢討 끝에 經濟副總理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判斷에 따른 것이며 統一院이 統一政策을 모두 主管하고 있음을 말씀드림.



○ 李仁模 問題

- 李仁模 問題는 國內新聞이 너무 美化해서 報道를 한 경향이 있는데, 北에서는 그가 體制維持를 위해 利用할 價値가 있다고 판단하여 거의 6개월간을 매일같이 李仁模送還 群衆大會를 開催한 것임.
- 우리는 북측에 비단 李仁模 한사람이 問題가 아니라 이북에 拉北된 사람들, 어부들, KAL기 승무원들도 약 60명되는데 이들과 같이 自己意思에 관계없이 北에 의해 離散家族이 된 사람들을 相互主義原則과 自由意思에 의해 돌려보내자고 提議하였으나 북측은 막무가내로 李仁模만 送還하자고 억지를 쓰고 있는 상태임.

金元萬 顧問

- 南北經濟協力問題중 남포공단개설문제에 대해서는 金宇中 顧問께서 직접 金日成, 金達玄 두사람을 만나 깊은 얘기가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意見을 부탁드립니다.
- 南北對話에 있어서는 政府에서 너무 서두르는 것같아 우려되나 金達玄 副總理의 訪問招請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함.  
北에는 강·온파가 있는데 우리는 온건파를 포섭하여 도와주는 것이 필요함.

李兌榮 顧問

- 金達玄 副總理는 대단한 사람이며 그사람을 招請한 것은 잘했다고 생각함.  
다만 그의 초청이 우리가 그를 招請한 것인지, 그가 오겠다고 하여

招請한 것인지 그 사정이 궁금함.

- 金達玄 副總理는 世界의 變化樣相이라든지, 統一이 안되면 못산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 金日成이 우리의 경제형편을 살펴보고 진짜 어느정도 發展되었는지, 投資할만한 能力은 있는지, 産業을 共同으로 할 수 있는 實力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귀중한 카드를 보낸 것으로 생각하며 核問題의 解決없이는 經濟協力도 안된다고 하는 것은 檢討해 볼 問題라고 생각함.

### 金 宇 中 顧問

- 대학졸업후 海外貿易을 할 당시, 갈 수 있는 나라보다 갈 수 없는 나라가 더 많았는데 그당시 心情은 절박하였었음.  
그후 東歐圈의 몰락, 소련의 몰락 등으로 南北對話가 活性化되어 그 속도가 매우 빠른 것같지만 우리같은 사람들은 20년 동안이나 그 벽을 뚫으려고 계속 努力하여 왔음.
- 오늘을 사는 우리가 다음 세대와 내일을 위해 해야 할 義務가 있는데 이는 우선 하나가 되는 것이며, 하나가 되어야만 先進化가 가능한데 이는 統一을 前提로 하는 것임.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對話를 위한 努力을 계속하여야 함.
- 북에서 金日成이 죽고 革命이 일어나서 38線이 무너지고 獨逸처럼 사람들이 몰려 내려온다면 우리가 어떻게 견딜 수 있겠으며, 기왕 망할 바에야 한번 해보자고 한다면 큰 問題가 아닐 수 없음.
- 제가 北에 대해 關心을 갖기 시작한지 5~6년이 되었는데 그 동안 北에는 사실 엄청난 內部變化가 있었음.

현재 懸案問題가 많으나 이런 懸案問題 하나 하나를 보기 보다는 總體的인 方向에서 보아야 할 것임.

- 이번에 金達玄 副總理가 오게 된 動機는 政府에서도 얘기가 있었지만 그분하고 몇번씩 만나는 중에 그분이 우리나라의 實力에 대하여 자세히 모르고 있다는 점에 연유된 것임.
- 그들은 우리나라가 部品이나 組立하고 있는 정도로 알고 있고, 이것은 우리나라를 다녀간 북한사람들이 대체로 나쁘게 얘기하는 것에 기인하는 것임.

그래서 제가 金達玄에게 “한번 와서 實情을 보라. 당신들이 經濟開發을 한다고 하는데 와서 보면 參考가 크게 될 것인데 왜 안오느냐” 하니까 金達玄이 자기는 와서 보고 싶은데 北韓은 經濟보다 政治가 優先이기 때문에, 政治하는 祖國平和統一委員會에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가 오고싶어도 올 수 없다고 얘기하였음.

- 그래서 2월에 北에 갈 때 우리 副總理하고 미리 의논해서 金日成을 만났을 때 경제이야기를 하다가 “우리가 과거 20년동안에 상당히 發展했는데 지금 北을 기본적으로 보면 100%가 高等學校를 卒業했고, 세계에서 제일 良質의 勞動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市場만 있으면 施設을 投資하여 우리가 60년대, 70년대 하던 식으로 輸出하는것이 쉬운 일이므로 金達玄 副總理를 보내 우리가 어떻게 했었는지 한번 보는 것이 어떠한가, 또 보내려면 實力者들이 와서 실상을 보라”고 提議하였음.
- 이같은 提議를 하게된 意味는 두가지인데 첫째는, 와서 보아야 남쪽 하고는 상대가 안되겠구나 하는 심정을 가질 것이며 둘째는, 현재의

市場은 중국, 소련이 제일 크며 다음이 동남아인데 北韓하고 우선 統一이 안되더라도 交流가 되고 交易이 된다면 國家利益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본 것임.

- 그후 당국자간 訪問條件 등 여러가지를 접촉하여 副總理 招請으로 金達玄이 오게 된 것인데 이번 訪問은 그동안 여기 왔던 북한사람들이 대부분 政治하는 사람들이지 政府의 테크노크라트들이 여기 온 적이 거의 없으며 왔다 하더라도 産業施設 등 우리 能力을 볼 수 있는 機會가 없었으므로 제 信念으로는 아주 잘 왔다고 생각하고 있음.
- 統一이 언제 되든지간에 우선 對話가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統一院이 아주 강해지고 확장되어야 하며, 豫算이나 사람들이 통일원에 몰려야 한다고 생각함.

왜냐하면 지금 여러 부처에서 관여하다 보니까 意見도 다르고 컨센서스를 이루는 데도 상당히 힘들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임.

#### 副總理

- 궁금증이 조금 풀리셨으리라고 생각함.

#### 金宇中 顧問

- 남포공단을 갈 때 許可를 받고 가서, 合意를 하고 돌아왔는데 현재 核問題때문에 지연되고 있음.
- 남포공단은 1차, 2차, 3차로 나누어 1차는 대략 700만불 정도 投資하여 北에서는 땅을 제공하고, 건물짓고, 사람투입하고, 우리는 原資材를 갖고가고 人件費들여 만들어가지고 輸出하는 것임.

- 이러한 動機는 거의 다 施設들이 남아 우리처럼 高速으로 生産性있는 工場이 별로 없으며, 제가 金達玄과 얘기해서 사실상 보는 것과 듣는 것이 다르고 돈도 얼마들지 않으므로 직접 하나 만들어 金主席이나 金正日에게 보여주면 좋지 않겠는가 하여 시작한 것임.
- 남포공단 문제가 核問題이후 中斷되어 있는 실정이나 사실 현재 北과 交易하여 赤字가 나면 냐지 돈벌 것은 없으며, 남들이 經濟協力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經濟協力이라고는 생각치 않고 있음.
  - 예컨대, 1인당 매월 100불을 준다면 2,000명을 고용해도 20만불이니까 1년에 약 250만불쯤 되는데 그것이 무슨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示範事業으로서 이런 것은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일 뿐임.
  - 金達玄 副總理는 金日成大學을 1등으로 졸업하고 教授를 하다가 金日成이 불러 어려운 일을 맡겼는데 能力이 있어 현재의 직위를 맡은 것인데, 그는 金日成 앞에서도 비교적 옳은 말을 한다고 하며 이번 訪問시에도 비디오 카메라맨을 대동하여 産業施設들을 전부 소상히 비디오로 찍어 金日成, 金正日에게 직접 보여주고 報告할 計劃이라고 하였음.
  - 金達玄 副總理는 어떻게든지 남북간의 물꼬를 트려는 사람이고 이번 訪問을 통해 韓國의 정확한 실상을 把握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政治하는 사람들이 거짓말로 보고하거나 우리나라의 反體制 人士들에게서 받은 정보를 갖고 우리나라가 금방 쓰러질 것같이 報告하는 것과는 달리 자기 나름대로 正確하게 우리 실상을 分析하고 報告할 것으로 생각됨.
  - 이번 金達玄 副總理 訪問期間중에 사실 남포공단 얘기도 나왔는데 그

는 이왕 하기로 했던 것이고 또 核問題 나오기 전에 하기로 한 것이니까 이걸 계속 추진하여 보여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길래 이러한 問題는 내가 할 사항이 아니고 政府와 協議해야 할 事項이라고 하였음.

- 政府와 金達玄 副總理의 접촉결과 調查團이 어떤 規模와 어떤 方式으로 가는지에 대하여는 아직 通報를 받은 바 없으나 통보가 오고 方針이 決定되면 저는 장사속이 아니라 北이 開放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임할 것임.
- 사실 우리가 창구니, 獨占이니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은 전혀 없으며 이는 이번 남포공단 경우만 하더라도 우리 品目이 아니고 中小企業 品目이기 때문에 中小企業들이 앞으로 할 일이며 저는 중간에서 알선하고 돈이 없다면 돈을 일부 대주어서 일을 成功시키고 싶은 마음뿐임을 고문님들께서도 理解하여 주시기 바람.

#### 李 亨 根 顧問

- 무슨일이 있더라도 참고 인내해서 對話를 계속한다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으며 동감이나 가장 걸림돌이 되어있는 것이 核問題임.
- 核問題와 관련해서는 美國, 日本 등 自由國家들이 지대한 關心을 갖고 있으며 이는 아시아에서 核問題로 인해 問題가 發生하는 것을 원치 않고 있기 때문임.

특히 美國의 경우에는 2중적인 問題에 直面하고 있는데 北韓이 만약 核을 고집한다면 日本이 반드시 이에 對備를 할 것이기 때문이며, 日本이 움직여서 문제가 커지면 이는 北韓과 日本의 核保有가 質과 量이 다르다는 점에 기인하는 것임.

그런 점에서 經濟問題가 물론 중요하나 나라의 生存없이 經濟가 있을 수 없는 것이므로 신중히 생각할 필요가 있음.

#### 金 宇 中 顧 問

- 日本의 경우 핵을 안가지고 있지만 핵을 가지려고 한다면 불과 몇 개월 내에 가질 수 있는 能力이 있으며 日本의 핵保有 與否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國際社會 全體의 問題로서 日本의 경우를 구태여 염려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함.
- 北韓이 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確認만 된다면 이는 國際社會에서 용납되지 않을 것이며 중국, 소련, 일본, 미국, 동남아 전체의 문제로서 北韓의 핵問題는 어떤 형태로든지 解決된다고 보고 있음.
- 北韓에는 현재 400여명의 日本人이 常駐해서 앞으로를 대비하여 市場調査 등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調査에 불과한 것으로 지금 北韓은 전기도 없는 실정이며 이를 위한 發電所를 建設하는 데도 3년은 소요될 것임.
- 현재 오해가 빚어지고 있는 데에는 일부 言論의 責任도 없지 않은데, 先決問題인 離散家族問題는 대화하는 상대방의 입장도 고려해야 하므로 한꺼번에 갈 수는 없는 일로서 段階的으로 해야 할 것임. 북한 의 시골은 평양과는 차이가 아주 많으며 없는 사람이 자격지심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점을 理解하여야 할 것임.
- 제가 들은 정보로는 리비아의 가다피도 國際社會의 壓力을 견디지 못하고 금년말 안으로는 아마 망명을 하는 것같은데, 거둬 언급되지만 北韓이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소련, 중국도 다 그런 상태로 어

면 돌파구도 없는 상태에서 核問題는 다만 時間問題로 解決될 問題라고 나는 생각함.

- 統一問題에 대하여는 옳은 방향을 세워서 옳은 방향으로 國民에게 弘報하는 것이 중요하며, 政權에 관계없이 튼튼하게 토대를 세워 推進하여야 할 것임.

### 洪性澈 顧問

- 金宇中 顧問께서 南北對話를 할 때 原則을 지키는 것이 좋지만 그렇게 한다면 언제 남북문제가 해결되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신중히 하자는 것은 우리의 目標인 共存과 平和的인 交流協力を 達成하기 위해서는 原則을 지켜야 可能하지 그렇지 않으면 이용당하고 말 뿐이라는 기우때문임.
- 金達玄 訪問問題는 金達玄 초청 자체가 좋았다 또는 나쁘다 하는 차원이 아니라 金達玄을 왜 招請했는지 目的과 理由·經緯를 國民에게 說明하고 弘報했어야 한다는 의미임.
- 南北問題, 統一問題는 國民의 컨센서스를 바탕으로 推進해야 한다고 보는데 남포공단 문제에 있어 妥當性 調査를 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에 대하여 國民감정상 核問題의 解決, 離散家族 訪問事業의 進展 등이 오늘날의 國民感情이라고 볼 때 北韓이 점점 더 반대로 나가고 있다는 징후에서는 妥當性調査라는 명목으로도 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됨.



副 總 理

- 가까운 시일내에 顧問會議를 다시 개최키로 하겠으며 오늘 주신 말씀들을 최대한 政策에 反映토록 노력하겠음.

## 〈第 2 次 會 議〉

### (1) 會議概要

가. 日 時 : 1992. 9. 22(火) 11:00~14:00

나. 場 所 : 南北會談事務局 會談場(3층)

다. 參 席 : 顧問 35名

權五琦, 金命潤, 金玉均, 金玉烈, 金元萬, 金 漵, 金致烈  
金判述, 金賢子, 閔寬植, 朴權相, 朴東鎭, 朴 昇, 朴贊兢  
朴賢植, 白善燁, 宋南憲, 慎道晟, 吳綠園, 尹勤煥, 李季順  
李相敦, 李用熙, 李昌熙, 李忠煥, 李兌榮, 張盛煥, 鄭憲柱  
趙錫來, 趙淵夏, 趙香祿, 蔡汶植, 崔浩中, 韓豹頊, 洪性澈

※ 院內(12名) : 副總理, 次官, 企劃管理室長, 統一政策室長, 情報分析  
室長, 統一研修院長, 南北會談事務局長, 交流協力局  
長, 教育弘報局長, 公報官, 第 3 政策官, 總務課長

### 라. 會議案件

- 顧問新規委囑에 따른 相見禮 및 當院幹部 紹介(副總理)
  - － 新規委囑顧問(14명) : 金玉均, 金 漵, 金致烈, 閔寬植, 朴權相,  
朴 昇, 朴賢植, 尹勤煥, 李季順, 李昌熙,  
趙錫來, 趙香祿, 蔡汶植, 崔浩中
- 新任議長 選出
- 第 8 次 南北高位級會談 結果報告(次官)

## (2) 會議內容

### 【副總理 人事】

- 오늘 바쁘신 중에도 顧問會議에 많이 參席하여 주신 고문님들께 감사드리며, 특히 14분의 새 고문님들을 모시고 會議를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새로 委囑된 고문님들의 활동에 새로운 기대를 갖으면서 統一院을 代表하여 人事드립니다.
- 오늘 會議는 먼저 새로 委囑된 14분의 새 고문님들을 소개해 드린 후에 지난 8年동안 顧問會議 議長으로서 수고하시고 임기만료로 물러나신 金溶植 前議長님의 뒤를 이어 統一顧問會議를 이끌어 주실 新任 議長님을 選出하는 순서가 있을 것임.
- 오늘 새로 나오신 고문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참고로 統一顧問會議의 沿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음.
  - － 統一顧問會議는 統一院이 69년 國土統一院으로 創設되고 동년 5월 國土統一諮問會議規程이 大統領令으로 制定되면서 36분이 최초로 國土統一諮問委員으로 委囑되면서 發足되었음.
  - － 初代議長은 白樂濬 先生께서 就任하셨고, 70년 國土統一顧問會議規程으로 改正된 이후 4년 任期條項 등이 新設되었고, 73년 2代議長으로서 郭尙勳 議長께서, 75년 3代議長으로서 許 政 議長께서 취임하셨으며, 4代議長으로는 84년부터 지난 2월까지 金溶植 議長께서 수고하여 주셨음.

- 금년 2월 8일자로 金溶植 前議長님을 비롯해서 金壽煥 顧問, 金日煥 顧問, 申泰煥 顧問, 張炯淳 顧問, 崔完福 顧問 등 6분의 고문님들께서 사임하시고, 9월 1일자로 大統領께서 統一顧問으로 委囑하신 14분의 새 고문님들을 모시게 되어 統一顧問會議는 현재 43분으로 구성되어 있음.
- 아무쪼록 社會 各界 元老이신 고문님들께서 統一 및 南北對話 全般에 걸쳐 좋은 意見을 말씀해 주시고 많은 지도와 鞭撻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議長 選出】

#### 副總理

- 統一顧問會議 第5代 議長選出 순서임. 議長이 계시면 의장님 사회로 새 의장님을 選出하거나 고문님들 중의 최연장자께서 임시의장님을 맡으셔서 司會를 보시거나, 임시의장님을 選出하여 會議를 進行하는 것이 보통의 會議進行 方法이겠으나 고문님들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새 의장님을 선출할 때까지 제가 會議를 進行하고자 함.

#### 顧問 一同

- 찬성함.

## 副 總 理

- 議長은 顧問중에서 互選하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여러 고문님들께서 선정을 하시되 選定方法을 相議해 주셔야겠는데 제가 의사봉을 칠 자격은 없으나 고문님들께서 양해를 하여 주셨으므로 정식으로 新任 議長 選出案件을 上程하겠음.
  - 고문님들께서 秘密投票를 할 것까지는 없다고 생각되나 혹시 고문님들께서 새 의장을 選出하는 좋은 방법을 비롯하여 口頭로 互薦해 주신 분이 좋으시다면 재청, 삼청으로 동의를 성립시키는 방식으로 決定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함.
- 그 이외의 選出方法과 意見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람.

## 李 相 敦 顧 問

- 無記名 秘密投票로 議長을 選出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 副 總 理

- 無記名 秘密投票로 하자는 意見이 나왔습니다만 그외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람.

## 洪 性 澈 顧 問

- 無記名 秘密投票도 좋은 방법이나 여기 계신 분들이 서로 잘 아는 사이이고 모든 분이 議長이 될 資格이 있으나 統一顧問會議인 점을 고려하여 과거 南北調節委員會 委員長을 지내시고 平統 首席副議長

도 하였고, 國會議長도 지내신 閔寬植 고문님을 의장님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개별적 의견을 提案함.

#### 副 總 理

- 李相敦 顧問님의 無記名 秘密投票로 하자는 案과 洪性澈 顧問님의 口頭互薦을 통해 議長을 選出하자는 案이 나왔음. 그 밖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람.

#### 金 元 萬 顧 問

- 한분을 천거해서 決定하는 것보다 세분 정도를 推薦하여 決定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

#### 李 忠 煥 顧 問

- 銓衡委員制를 採擇하는 것을 제안함.
- 銓衡委員을 5명 選出해서 전형위원들이 候補者를 選出하고, 이 후보자를 顧問會議 全體에서 可否를 묻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

#### 副 總 理

- 金元萬 고문님은 세분을 추천해서 無記名 秘密投票로 결정하자는 案을 제안하였고, 李忠煥 고문님은 銓衡委員制를 採擇하자는 案을 제안하였음. 그 밖의 다른 意見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람.

## 吳 綠 園 顧 問

- 銓衡委員制를 採擇할 경우에는 議長選出의 全權을 銓衡委員들에게 맡기고 報告만 받는 것이 좋겠다는 첨가의견을 제안함.

## 副 總 理

- 無記名 秘密投票로 세분정도의 候補를 내서 했으면 좋겠다는 案에 재청이 한분 계시고 삼청이 없으시기 때문에 동의로 성립되지 아니 하였음.
- 洪性澈 고문님이 口頭互薦에 구체적으로 한 분을 거명해주셨는데 이 분에 대해 滿場一致로 採擇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案에 대해서는 재청, 삼청이 있기 때문에 원안으로 동의를 成立되었음.
- 다음 修正案으로서 銓衡委員制에 대해 재청과 삼청이 있기 때문에 修正案도 동의를 成立되었음.
- 두가지 案을 表決에 붙이겠음.
- 修正案에 贊成하시는 고문님이 7분, 원안으로 성립된 口頭互薦에 의한 滿場一致制에 贊成하시는 고문님이 21분으로 原案으로 決定됐음을 宣布함.
- 原案이 閔寬植 顧問을 議長으로 推薦하여 주시고 이 原案이 表決結果 決定되었으므로 閔寬植 고문님이 第5代 統一顧問會議 議長으로 選出되었음을 宣布함.

## 【議長 人事】

- 各계 各층에서 오랫동안 이 나라를 위해 애쓴 많은 어른들을 한자리에 뵙게 되어 반갑고 역대 의장님이 우리나라 굴지의 白樂濬, 許政, 郭尙勳 선생님들이신데 대해 과연 그분들의 자리를 이어받을지 걱정됨.
- 일단 選出된 이상 最善을 다해서 統一問題에 여러분의 指導와 協力を 얻어서 일을 해나갈 것을 다짐함.

## 【討議 및 諮問】

### 閔寬植 議長

- 궁극한 점, 앞으로의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서 高見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에 평양을 다녀오신 李兌榮 고문님께서 먼저 所感을 말씀해 주셨으면 함.

### 李兌榮 顧問

- 機會를 주셔서 感謝하며 이번에 굉장히 감격스러웠음.
- 우선 태어난 故鄉, 자라난 故鄉이었기에 47년만에 간다는 것만으로도 어린아이처럼 흥분되었음.
- 가기 전에는 내마음 속에도 3·8線이 있었는데 이번에 갔다와서 마음 속에 있던 3·8線이 무너진 것을 알았음.
- 統一하는 데는 우리가 經濟力이나 自由體制 등 北韓보다 우위에 있



- 는 것과 함께 人的往來가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했음.
- 평양갔다오는 것에 대해 記者가 소감을 물었을 때 내가 갔다오면 4천 2백만분의 1만큼 統一이 된다고 했는데 막상 가보니 “北韓도 사람 사는 데로구나”하는 생각을 했음.

#### 愼道晟 顧問

- 南北關係가 交流協力時代로 들어왔으므로 統一顧問會議도 북측하고 人的交流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겠음.
- 북쪽에도 우리 顧問會議와 비슷한 諮問機構가 있으면 평양이나 서울에서 같이 만나 民族의 宿願을 풀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議論할 수 있는 機會를 마련했으면 좋겠음.

#### 閔寬植 議長

- 統一問題가 자칫하면 여러가지 혼선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봄.
- 顧問會議가 좀더 活性化되어 南北會談前에 여러가지 意見을 收斂해서 建議하는 것도 좋겠고 또한 愼道晟 顧問께서 말씀하신 意見도 긍정적으로 檢討해 볼 問題라고 생각함.

#### 李相敦 顧問

- 89년에 베를린장벽이 무너졌을 때 現地에서 實務者의 이야기로는 東西獨 基本條約締結을 1970년에 한 후 이렇다할 진전이 없었다고 했는데 결국 베를린장벽이 무너진 것은 라이프찌히 100만명 촛불데모가 계기가 된 것이었음.

- 南北統一이 될 경우 南韓에서 北韓의 1천만명의 人口를 수용할 能力이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
- 統一問題는 國民에게 선심쓰는 것처럼 하지 말고 냉정하게 시간을 가지고 세심하게 할 필요가 있음.

### 洪性澈 顧問

-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첫째로는 統一院 또는 政府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 두번째로는 離散家族에 대한 문제, 세번째로는 國民에 대한 弘報에 관해서임.
- 첫째, 南北會談의 구도는 高位級會談이 남북간의 政策 또는 重要問題를 決定하고 分科委員會는 그러한 토대위에서 여러가지 協議를 하고 그 밑에 共同委員會는 협의가 결정된 사안을 토대로 해서 履行 및 實踐에 옮기는 것으로 되어 있음.
- 그런데 8차 南北高位級會談에서는 많은 문제들의 토의·협의를 자체가 결국 共同委員會로 넘겨졌음.
- 共同委員會 代表構成에 있어서 과거에는 委員長들이 會談代表들이어서 잘했는데 지금 共同委員會를 보니까 履行機構라는 전제하에 政府의 實務局長들이 많은데 履行도 하고 協議도 해야 하기 때문에 代表構成에 있어서 세심한 配慮를 해야 할 것임.
- 즉 共同委員會 및 赤十字會談의 代表構成을 큰 안목에서 履行뿐만 아니라 協議·討議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提高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두번째는 離散家族問題로 이는 政府가 精誠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 실제로 느껴지는 것은 그렇지 못한 감이 있음.
- 離散家族問題와 관련해서 원칙적인 문제나 기본적인 문제는 좀더 分科委員會라든가 高位級會談 테두리 안에서 해결을 하고 그 해결의 토대를 놓고 赤十字社에 넘겨야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 1차회답에서 합의된 것은 두가지로 하나는 되도록 빠른 시일내에 赤十字會談을 再開시킨다는 것, 두번째는 南北이 유엔에 同時 加入하는 문제를 쌍방간에 모여서 의논한다는 것이었는데 모두 이행이 되지 못했고 심지어는 7차 회답에서 8·15 老父母故鄉訪問을 合意하고 도 實踐하지 못한 것을 볼 때 赤十字會談을 빠른 시일안에 再開한다는 표현보다 좀더 具體的으로 時日을 정해서 合意했으면 바람직했을 것으로 생각함.
  - 離散家族問題는 李仁模 문제나 核問題와 關係없이 좀더 本質적인 問題로 推進시켜 나갈 必要가 있음.
  - 세번째는 弘報問題인데 과거에는 國民들의 統一에 대한 시각이 절대 受容하자는 측과 절대 反對하는 측, 두 극단으로 갈라졌는데 지금은 천천히, 신중하게 해서 北에 속지 말라는 것이 國民 絶對多數의 輿論임.
  - 이는 國民들이 北韓의 實情, 金日成의 實體 및 對南戰略을 올바르게 인식하게 된 이유라고 생각함.
  - 國民의 支持와 뒷받침을 받고 南北問題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北韓의 여러 상황을 事實대로 傳達하고 우리의 實情에 대해서도 國民에게 솔직하게 얘기하고 특히 매스컴에서 南北關係를 다루는 분들에게 定例的으로 브리핑을 하는 것도 必要하다고 생각함.
  - 가령 本質的인 問題가 解決되기 전에는 實質的인 問題의 進展은 없

다고 할 때 本質的인 문제는 核相互査察이고 實質的인 문제는 經濟協力이라는 등 문제가 구체적으로 전개되면 될수록 國民들의 올바른 이해가 필요함.

- 따라서 北韓에 대한 실상과 정책 뿐만 아니라 이에 對應하는 우리의 政策을 최선을 다해 國民에게 弘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副總理 答辯】

- 이번 평양세미나 女性代表 參席問題를 놓고 국내 100여개 女性團體가 參與를 희망했기 때문에 代表團을 構成하는 過程에서 무척 힘이 들었으나 세미나에 참석하신 분들은 統一院側의 協力에 대해 고마움을 표명했고, 좋은 成果가 있었다고 판단되며, 앞으로도 이러한 機會를 많이 提供할 방침임.
- 統一顧問會議과 대칭되는 機構라든가 비슷한 機構가 北에 있다면 人的交流의 일환으로서 함께 訪問하는 方法을 강구해 보자는 말씀은 共同委員會가 發足되어서 그런 문제를 다룰 기회가 있을 때 고려해 볼 수 있겠음.
- 統一이 쉽사리 이루어지지 않으리라는 것은 統一院뿐만 아니라 高位級會談의 代表들도 같은 생각임. 다만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은 分斷의 固着化를 永續시키는 結果가 된다는 판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규모가 크던 작던 北이 變化를 가져올 수 있도록 여러가지 행동이나 조처를 남쪽에서 할 수 있다면 走馬加鞭격으로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政府는 가지고 있음.

- 方法上에 있어서 政治的·軍事的으로 信賴性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人的인 交流에 더 力點을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는 見解도 있으나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반드시 옳바르다고는 생각하지 않음.
- 그런 問題들에 대해서는 高文님들께서 수시로 지도말씀을 해주시면 충분히 생각해서 解決해 나갈 것이며, 다만 政府로서는 역시 統一이 곧 올 것을 장담은 하지 못하나 努力은 해야 한다는 立場임.
- 共同委員會 우리측 代表構成이 專門家라기 보다는 너무 실무에 치우쳐서 代表構成이 북쪽과 協議하는데 均衡이 안맞을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히 하고 強化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충분히 고려하겠음.
- 共同委員會를 運營해가는 過程에서 필요에 따라 代表는 수시로 交替可能하기 때문에 너무 實務的인 것이 오히려 해가 된다고 판단되면 代表들을 交替해서 強化해 나갈 것임.
- 離散家族 老父母故鄉訪問과 관련해서 政府가 附屬合意書에 努力을 하지 않은 인상이 있다는 말씀은 사실과 다름.
- 저도 여기에 있으면서 老父母의 故鄉訪問이 제일 重要하기 때문에 7次 高位級會談에서 合意한 대로 조건없이 즉각 이를 實現시키고자 努力하였으며 우리측 代表團도 평양에 도착하던 날부터 老父母訪問 問題 成事를 위해 모든 努力을 경주하였었음.
- 本質的으로 政府가 생각하고 있는 方針 자체가 잘 되었는지 여부는 다시 檢討해 보아야 되고 批判을 받게 되면 修正을 해야 하겠지만 努力한 것은 事實임.
- 離散家族問題에 관련해서 附屬合意書에서 合意된 부분을 實現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날짜를 삽입하려 했으나 協商인 까닭에 상대방이

있어서 결국은 실패했음.

- 離散家族老父母訪問은 계속 人道的 次元으로 高位級會談에서 다루어지고 노력을 할 것임.
- 政府가 弘報를 철저히 해서 國民들의 consensus를 얻어 統一政策을 遂行하도록 하라는 말씀을 명심하겠음.
- 統一問題는 어떤 특정 정파라든지 특정인의 이익과 정략에 의해서 좌우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7千萬 民族의 염원이기 때문에 國民들의 consensus를 얻어내기 위한 모든 努力을 다하고 그런 토대위에서 實行해 갈 것임.
- 核問題에 대해서는 核에 관한 政府의 立場을 정리한 원칙에서 물러선 적이 없음.
- 그 基本原則은 첫째 核의 南北相互査察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남북간의 本質問題에 큰 진전이 없을 것이라는 基本方針과 두번째는 基本合意書를 履行하는 문제와 附屬合意書를 도출해내는 노력은 계속한다는 것, 세번째는 核問題와 관계없이 離散家族故鄉訪問은 무조건 實行에 옮긴다는 原則임.
- 核에 대해서는 어떤 변화가 있다면 예를 들어 公信力있는 國際機構나 機關이나 우리가 어떤 경로를 통해 특히 再處理施設이나 플루토늄 생산 등이 위험한 상태가 아니라는 사실이 있기 전에는 지금까지의 基本原則을 固守할 입장임.

### (3) 主要結果

- 閔寬植 顧問이 '92년 9월 22일자로 第5代 統一顧問會議 議長으로 選任.

## 〈 第 3 次 會 議 〉

### (1) 會議概要

가. 日 時 : 1992. 11.25(水), 11:00~13:30

나. 場 所 : 南北會談事務局 會談場(3층)

다. 參 席 : 顧問 34名

閔寬植, 權五琦, 金命潤, 金榮禎, 金玉烈, 金字中, 金元萬, 金 洙,  
金致烈, 金判述, 金賢子, 朴東鎮, 朴 昇, 朴贊兢, 朴賢植, 白善燁,  
徐廷柱, 宋南憲, 慎道晟, 吳綠園, 尹勤煥, 李季順, 李用熙, 李昌熙,  
李兌榮, 李亨根, 張盛煥, 鄭海永, 鄭憲柱, 趙香祿, 蔡汶植, 崔浩中,  
韓豹項, 洪性澈

※ 院內(5명) : 副總理, 次官, 統一政策室長, 南北會談事務局長,  
第3政策官

### 라. 會議內容

- 鄭洪鎮(前南北會談代表) '南北韓 統一戰略' 講演
- 南北會談關聯 討議 및 諮問

### (2) 鄭洪鎮(前南北會談代表) '南北韓 統一戰略' 講演內容

- 南北關係에 대한 제 견해는 사실 南北關係는 늘 흐린 것이나 지금 상태는 더 이상의 먹구름은 오지 않겠구나, 언젠가는 개이지 않겠는

가 하는 정도의 判斷을 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對北政策과 北韓의 對南戰略이라는 두 개의 역사적 흐름을 살펴보면, 現時點에서 南北關係가 어디에 位置하고 있는가를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함.

#### 〈우리나라의 對北政策變化〉

- 우리의 對北政策을 60년대, 70년대, 80년대의 세 단계로 區分할 때 60년대의 韓國은 貧困으로부터의 解放에 전력을 기울였던 시대로서 先建設, 後統一의 理念 하에 朴正熙 大統領은 이 시기에 統一問題를 논하는 것조차 禁止하면서 全力을 經濟開發에 置重하였음.
  - 이 당시 北韓의 經濟力이나 軍事力이 우리를 앞서고 있었기 때문에 地下黨組織을 했다는지, 김신조 일당의 靑瓦臺 奇襲事件 등이 저질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北韓의 무모한 짓을 치욕적일 정도로 참고 견디었음.
  - ‘가난으로부터의 解放’, ‘6·25戰爭을 겪은 民族으로서 戰爭의 恐怖로부터의 해방’, ‘民族分斷에서 오는 苦痛의 解消’ 세 가지를 우리 민족의 간절한 소망으로 든다면 60년대는 北韓의 挑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참으면서 經濟開發에 置重하였던 즉 가난으로부터의 해방문제에 주력하였던 時代였다고 할 수 있음.
- 두번째 소망인 戰爭의 恐怖로부터 어떻게 解放되느냐 하는 問題에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한 것이 70년대의 南北對話라고 할 수 있음.
  - 남북간의 經濟力 指標로서 1人當 國民所得이 69년에 들어 크게



- 좋아졌고, 經濟成長率이 우리가 북한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장차 經濟力 格差가 크게 벌어지리라는 것을 예상하고 선언한 것이 70년의 8·15 慶祝辭였음.
- 70년대의 國際情勢는 월맹의 적화통일이 내다보이던 시점으로 당시 아시아의 國際共產主義 勢力은 월남의 적화이후에는 한반도가 상당히 危險地域으로 登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음.
  - 또 닉슨 大統領의 關東트린宣言, 日本과 中國의 國交正常化 등의 격동속에서 한반도에 어떤 紛爭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하는 염려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었음.
  - 그러므로 이 당시 70년의 8·15宣言과 그 精神을 具現하기 위하여 제의된 것이 71년의 南北赤十字會談이었는데 이는 國際市民社會慣例가 가장 확립된 것이 赤十字會談으로 對話가 지속되는 동안에는 戰爭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간절한 所望에서 비롯된 것임.
  - 그 이후 7·4 南北共同聲明이 發表되고 對話가 推進되다가 1년 반만에 對話가 中斷되었는데 중단의 가장 큰 이유는 73년에 발표된 6·23宣言으로서 6·23宣言은 共產圈에 대한 門戶開放政策인 동시에 우리가 유엔에 加入하면서 북한의 유엔加入도 반대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른바 유엔 同時加入論 이었음.
  - 이에 北韓은 統一을 위한 對話만을 하지 分裂을 위한 對話는 하지 않겠다며 이는 ‘두 개의 조선’ 조작책동이라고 비난하며 끝까지 反對를 하였는 바 6·23宣言으로 인해서 8월 28일 金英柱가 “분열을 추구하는 자들과는 對話를 할 수 없다”고 하면서 南北

- 調節委員會를 파탄시킨 바 있음.
- 南北對話에 영향을 미치리라는 것을 생각하면서도 6·23 유엔 同時加入論을 提議하게 된 政府의 基本的인 立場은 전쟁을 막는 데에는 유엔에 加入하는 길이 國際的인 保障을 조금이라도 더 높일 수 있으리라는 것이었음.
  - 72년의 南北對話는 戰爭抑制가 가장 큰 目的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으며 그 이후 우리는 重化學政策과 더불어 自主國防, 이른바 防衛産業을 發展시키기 시작한 것임.
  - 80년대의 對話는 北韓과 緊張緩和 및 實質的 和解를 이루려는 길을 현실적 바탕 위에서 摸索하였던 段階라고 할 수 있음.
    - 7·4 南北共同聲明의 가장 큰 成果는 우리 國民들의 北韓認識을 現實化 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 바로 그 점임.
    - 72년 당시를 보면 60년대의 強硬한 反共政策으로 인하여 北韓關聯情報를 統制하고 있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北韓에 대한 認識이 전국민에게는 현실적으로 생소하였던 시기였음.
    - 예컨대 73년경 頂上會談이라는 용어는 ‘當局間의 最高位級會談’으로 표현되야 했으며, ‘平和共存’이라는 말도 그대로 쓰지 못하던 실정이었으나 南北對話가 73년 中斷된 이후 우리의 對北政策은 점차 現實化되기 시작하였으며 북한의 자료가 一般이나 學界에 점차 公開되기 시작하였음.
    - 北韓에 대한 認識이 점차 전국민에게 現實化되기 시작한 바탕 위에서 80년대 對話는 적극적인 입장에서 頂上會談과 아울러 政治·軍事會談까지도 적극적으로 提議하게 되었음.

- 90년대에 들어와서는 어느 문제에 관한 것이든지 예컨대 軍縮問題, 政治問題 등 모든 분야의 對北接觸에 積極적으로 나서고 있음.

#### 〈北韓의 對南政策變化〉

- 반대로 北韓의 變化過程을 살펴보면 30년간에 걸쳐 점차 守勢的 立場에 놓이게 된 歷史的 變遷過程을 겪게 되었음.
- 60년 8월 14일, 해방 15주년 경축대회시 金日成 報告에서 처음 제시된 것이 過渡的 措置로서의 ‘南北聯邦制’였는데 이 聯邦制는 실제 가장 좋은 방안인 “民主主義的 基礎 위에서 自由로운 南北總選舉를 실시하여 統一政府를 만들자”는 제안의 過渡的 措置였음.
  - 그 당시 北韓은 南北總選을 실시하면 자기들 北韓 共產黨이 政權을 잡을 것으로 생각하였던 것이며, 總選提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過渡的 措置로서 南北朝鮮의 聯邦制를 실시하자는 것이었는데, 이것도 우리측이 받아들일 수 없다면 순수한 經濟委員會라도 조직해서 남북간의 物資交易과 經濟建設에 相互協調를 하자는 제안을 하였던 것임.
  - 지금은 우리가 北韓에 經濟交流를 하자면 北韓이 안하려고 하는데 비하여 60년대에는 北韓이 ‘總選’, ‘聯邦制’, ‘經濟交流’ 등을 차례로 제안하였던 것임.
  - 62년 쿠바사태 이후 北韓은 4大軍事路線을 천명하고 地下黨을 조직하여 反共政府를 전복하려는 여러가지 시도를 하였는데, 靑瓦臺 奇襲事件이 있는 뒤 11월에 게릴라에 의한 解放區 設定이 가능한지 여부를 테스트한 것이 무장공비의 울진, 삼척 상륙사

건이었음.

- 이러한 시도들이 실패하자 70년대에 들어 北韓은 우리의 對話提議에 응하게 되었는데 北韓의 聯邦制 提案은 여러가지로 變化를 겪게 되었으며, 우리는 73년 6월 23일 10시에 ‘平和統一 外交政策’을 宣言하였던 것임.
  - 이날 저녁 북한은 대응책으로 ‘祖國統一 5大綱領’을 발표하였는데 4항에서 南北聯邦制 實施를 주장하고, 5항에서 유엔 同時加入 反對를 천명하면서 ‘高麗聯邦共和國’이라는 단일국호로 유엔 가입을 주장하였음.
  - ‘잠정적·과도적 조치로서의 聯邦制’라는 말 중에서 過渡的 措置라는 말이 削除되고 ‘高麗’라는 말이 첨가되어 ‘高麗聯邦共和國’이 주장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우리의 6·23宣言에 對應하기 위한 것이었음.
- 80년대에는 ‘民主’라는 말을 첨가하여 ‘高麗民主聯邦共和國’ 창립방안을 勞動黨 6次大會에서 제시한 것이 聯邦制에 관한 最終案이었는데 北韓은 聯邦制 實施의 前提條件을 계속 주장하면서 國號를 ‘高麗民主聯邦共和國’으로 하되 10大 施政方針을 연방제 실시의 전제조건으로 하여 우리와의 統一政府 樹立을 방해하려는 입장을 취하게 되었음.
  - 10大 施政方針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국군에 대한 ‘民族聯邦軍組織’과 外交政策에 있어서도 완전한 統一主張이 그것인데 이것은 ‘高麗民主聯邦共和國’ 주장이 그 시정방침까지도 共產主義 政權이 아니면 안된다는 것을 명백히 못박고 있는 것임.

- 우리 언론에 北韓의 손성필 駐蘇大使가 지역정부의 권한을 융통성있게 확대하기로 했다던지 김영남 外交部長의 미국에서의 얘기가 융통성있었다는 등은 10大 施政方針중에 7항과 10항을 조금 느슨하게 融通性있게 適用해 보겠다는 의미가 되는 것임.
- 북한의 전반적인 정책흐름은 60년대에 희망에 찼던 北韓의 統一政策이, 70년 南北對話시부터는 守勢的 立場에 몰리기 시작하였으며, 80년에 ‘高麗民主聯邦共和國’에 와서는 自己保護 위주의 統一方案을 내놓고 이것 아니면 어떠한 통일정부도 받지 않겠다는 自己體制保護의 징후를 보였으며, 90년대 對話에서는 솔직하게 自己體制保護가 時急하다는 점을 言及하게끔 변화하여 왔음.
- 현재 北韓이 안고 있는 여러가지 問題點들은 기본적으로는 金日成體制를 어떻게 維持하느냐 하는 문제이며, 經濟問題가 자기체제의 미흡에서 연유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改革과 開放이 필요한데 이것이 金日成體制를 維持하는 範圍內에만 局限되어야 하는 점이 큰 문제가 되고 있음.
- 北韓이 현재까지도 그 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金日成이 主體思想으로 워낙 심하게 統制하여 왔다는 점에 기인한다고 생각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北韓體制가 쉽사리 崩壞하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음.
- 53년 스탈린의 사망 이후에 東歐圈과 北韓의 體制強化 方向이 전혀 달랐음. 東歐圈이 붕괴하였으니까 北韓도 붕괴하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東歐圈은 스탈린의 獨裁를 批判하는 흐루시초프의 修正主義를 追從하는 입장이었는데 반하여 北

韓은 스탈린의 사망 이후 오히려 스탈린적 體制를 強化시킨 나라였기 때문에 내부에서 반항이나 변동이 일어날 징후는 아직까지 찾기 어려운 실정임.

- 북한의 南北合意書의 採擇, 美國과의 關係改善, 日本과의 國交正常化 政策은 우리와 미국, 일본이 연대하여 統合된 힘으로 北韓에 攻勢를 취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自己體制 保護의 일환으로 이를 활용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北韓이 언제 變化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展望하는 것은 무척 어렵지만 더 이상 먹구름은 오지 않을 것이므로 언젠가는 개일 것으로 보여지며 北韓이 현재 當面하고 있는 問題는 體制維持와 經濟問題라고 판단됨.
- 북한에 強硬派, 穩健派가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으며 단지 金日成 主席 밑에서 자기가 맡은 任務에 充實한 사람들만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됨.
  - 당 관계를 맡고 있는 안병수같은 代表的인 인물은 黨의 指導를 확립하는 것이 임무이고, 軍事關係를 맡고있는 김광진같은 대표적인 인물은 인민군이 黨을 보위하는 軍隊이므로 黨과 항상 理念을 같이 해야 하는 것이 임무이고, 연형묵 總理이하 국무원은 국방부가 그 안에 있지 않고 軍事委員會는 완전히 빠져있으므로 우리와는 달리 그 주된 임무가 經濟問題의 解決에 국한되는 것임.
  - 따라서 각자가 맡고 있는 任務에 따라 經濟問題를 맡고 있는 사람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改革·開放을 해야 하겠고, 體制維持를 맡고 있는 사람들은 이리이러한 條件들을 充足하는 條件

하에서의 開放을 주장하는 것이 현재 北韓의 政策 決定過程이라고 보여짐.

- 현재 南北基本合意書가 合意되고, 附屬合意書까지 合意가 되었지만은 重要 爭點事項들은 전부 留保條項으로 되어 버렸는데 북한측의 對南政策은 最高人民會議에서 그 정책이 折衷되는 過程에서 어떤 입장이 채택되는가에 따라서 變化하는 것이기 때문에 北韓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展望하는 것은 꽤 어려운 문제이나 단시일 내에 北韓이 變化하여 統一이 될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실정임.
- 일반적으로 金日成의 사망 이후에 어떤 變化가 있으리라고는 생각할 수 있으나 현재도 北韓이 變化하고 있다는 징후, 현재 北韓社會가 解體의 過程에 들어가고 있다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海外 勤務者들로부터의 歸順者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파악될 수 있음.
- 현재 북한 내에서도 연변쪽으로 탈출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는가고 판단되며, 이 사람들은 연변쪽이 아직도 北韓의 社會安全部 등의 統制하에 있기 때문에 연변쪽의 오지로 도망하여 한국사람들을 만나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됨.
- 北韓 內部에서의 불평 불만소식은 여러가지로 입수되는데 해외 교포들의 北韓訪問의 경우나 우리 代表團이 평양을 訪問한 경우 안내원들의 이야기나 태도 등이 70년대와는 엄청난 變化를 하고 있다는 것이 변화의 징후로 포착되고 있으며, 교포들이 평양에 갔을 경우에 黨 幹部들의 부패상 즉 100\$이나 200\$을 주지 않으면 안되는 실정, 海外公館員들이 궁핍하여 밀수 등 기타 방법

으로 公館費를 充當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를 착복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北韓社會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지 못한 여러 가지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음.

- 앞으로는 틀림없이 김만철씨 경우와 같은 歸順者가 점차 더 나타나게 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러한 징후의 證據들을 關係當局이나 專門家 등이 포착하여 北韓事情을 豫見하여 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현재로는 北韓이 崩壞하는 方向으로 가고 있는 것만은 확실한데 그 時期가 언제인가 하는 展望은 보다 많은 징후의 證據들을 포착할 때 可能하다고 판단됨.

### (3) 會議內容

#### 【副總理 人事】

- 지난 9월 22일 새로 고문님으로 委囑되신 고문님들을 모시고 全體會議을 가진 이래 10월 중에는 강원도 일원의 地方視察이 있었고, 몇 고문님들의 東南亞地域 海外視察도 있어 이제야 顧問會議를 開催하게 되었음.
- 그 동안 統一院의 變化를 설명드리고자 함. 統一院의 業務가 폭주하는 관계로 統一院 機構의 改編이 있었던 바 人員이 32명이 增員되었으며, 對話事務局이 會談事務局으로 명칭이 바뀌었음.
- 지난번 定期國會에서 豫算을 審議하는 過程에서 統一顧問會議의 豫算이 상당히 삭감되었음.



- 고문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顧問會議는 철저하게 超黨的으로 構成되어 있음.
- 지난 13대 國會의 4당체제가 維持되고 있을 때 각 政黨의 推薦을 받고, 그 외에는 各界를 망라하여 統一顧問會議를 構成하였던 것으로 統一政策에 있어 각 政黨이 다소 의견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當局者間의 會談이 계속되고 있는 때에는 超黨的으로 함께 협조하여 간다는 컨센서스가 이루어져 있었던 것으로 생각함.
- 따라서 會談의 진척상황이나 內容을 각 政黨의 代表들에게 그때그때 상세하게 報告하여 왔음.
- 그런데 國會에서는 각 政黨이 통일고문님들을 추천했던 사실은 잊어버리고 統一顧問會議가 마치 關連일변도의 機構인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계셨음.
- 이런 연유로 統一顧問會議 豫算은 많이 삭감되었으나 삭감된 豫算은 統一院의 타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當院은 계속 고문님들을 잘 모시도록 노력하겠음.
- 어제는 6共和國 1期 政府가 出帆되면서 추진하여 왔던 '盧泰愚 北方政策'에 대한 評價會議가 있었음. 임기 2개월여를 남기고 지금까지 해온 政策에 대한 成果·評價 등을 分析 報告하는 일환으로 6共和國 樹立 이후의 南北關係에 대해 報告를 드렸으며, 지난 19일에는 學者들로 구성된 評價會議를 開催하여 그 동안의 對北關係 成果에 대한 검토를 한 바 있음.
- 南北關係의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보면 그동안 많은 진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 4/4분기에 들어 교착상태에 빠진 감이 있는데, 유

일한 통로로서 核統制共同委員會 하나가 남아있으며 板門店連絡事務所는 24시간 가동되고 있음.

- 11월 27일 核統制共同委가 개최되더라도 연내에 타 共同委員會가 개최될 가능성이라든가, 12월 21일 예정인 제9차 高位級會談의 개최는 현재 상태로는 어렵지 않은가 하는 판단을 하고 있음.
- 北韓은 현재 T/S 訓練을 즉시 중지하지 않는 한 會談에 응하지 못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會談에 나오지 않는 진짜 이유는 다른데에 있다고 보여지며, 우리는 북한이 하자는 대로만 할 수는 없는 것으로 내년의 T/S 訓練은 북한이 核問題에 대해서 共同查察에 응하는 등 태도의 變化가 있기 전에는 그대로 強行할 것임을 분명히 함.
- o 오늘 이 회의에서 지금으로부터의 南北關係에 대해서 政府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귀한 말씀을 주시면 최대한 참작하여 대응해 나가고자 하며 좋은 충언을 부탁드립니다.

## 【討議 및 諮問】

### 李亨根 顧問

- o 11월초 통일고문들의 東南亞 海外視察時 金判述 단장님을 위시하여 모든 視察顧問들이 좋은 분위기에서 見聞을 넓힐 수 있었던 기회를 가졌던 것은 매우 유익하였으며, 議長 및 副總理를 비롯한 政府當局에 감사드립니다.
- o 李洪九 前 統一院長官 시절, 統一顧問會議에서 본 고문은 “理念의

우월, 열등은 이미 판정이 났으며, 時間은 우리에게 有利하므로 가만히 있어도 북측에서 접근을 해 올 것인데 어떤 연유인지 우리政府는 對北姿勢에 있어 만사에 저자세인듯한 느낌을 받았음”을 밝힌 바 있으나 현재는 우리측의 확고한 對應方針이 서 있다는 얘기에 마음 든든함.

- 그 당시 경고를 하는 뜻에서 “金日成 共產集團에 대해서는 마땅히 枯死作戰을 써야 한다”는 너무 자극적인 얘기를 한 바가 있는데 그후 再考한 결과 고사작전이라는 표현보다는 熟柿主義 原則을 건의하는 바임.
- 이는 北의 國內實情이나 經濟的 與件, 國際的 情勢로 보아 자연히 우리에게 접근을 아니할 수 없는 형편이므로 우리는 忍耐를 가지고 對話를 계속하여 北이 진지한 태도로 우리에게 응해오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임.
- 우리는 北韓이 對南赤化 戰略에는 하등의 變化가 없이, 지엽적인 戰術的 面에서만 약간의 變化가 있는 것임을 항상 유의해야 할 것임.

#### 金 致 烈 顧問

- 李亨根 顧問의 熟柿主義는 우리의 對北對應措置로서 가치있는 말솜으로 생각되나 이에 대한 鄭洪鎭 代表의 見解를 알고 싶음.
- 北韓은 金日成의 사망이나 經濟的인 要因에 의하여 體制가 崩壞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현재 北韓과의 經濟交流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金宇中 顧問은 北韓社會의 經濟적 곤경의 정도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 東 鎭 顧問

- 얼마전 統一院에서 배포한 자료중 英國戰略問題研究所에서 우리의 軍事力과 북한의 軍事力을 調査·分析한 資料에 의하면 北韓의 軍事力 增強이 매우 놀랄만한 수준이었음.
- 현재 북한의 經濟事情이 매우 심각하며 政府에서도 이러한 관점에서 對北政策을 계속 開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北韓의 經濟事情이 그렇게 어려운 정도라면 어떻게 놀랄만한 軍事力 增強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政府當局의 납득할만한 說明을 듣고 싶음.

#### 閔 寬 植 議長

- 北韓이 經濟적으로 매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朝·日修交 등에 장애물인 核開發問題를 명백히 하지 않아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수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궁금함.
- 日本의 有力紙에 의하면 이번 韓國의 大統領選舉에 북한이 혼란을 야기시킬 가능성이 전혀 배제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鄭洪鎭 代表의 見解를 듣고 싶음.

#### 鄭 洪 鎭 代表

- 李亨根 顧問이 말씀하신 北韓과의 會談戰略, 對北姿勢 등에 관한 견해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對北姿勢에 있어서 兄의 姿勢를 갖고 의연히 대처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되나 對北政策에 있어서만은

原則을 遵守하여 一貫性있게 推進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 개인적으로는 T/S訓練問題를 양보했던 것도 잘못된 것이라 생각함. 北韓은 남반부라 할 때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南半部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따라서 國內問題로 看做하고 있는데 이를 갈라놓기 위해서도 T/S訓練은 우리와 美國과의 對外關係 問題이지 북한이 간섭할 문제가 아님을 명백히 해야 할 것임.
- 또한 私見으로는 李仁模 送還이 이루어지더라도 離散家族 往來가 定例化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음. 李仁模 노인의 送還與否는 우리가 人道的인 次元에서 결론을 내릴 문제이지 北韓과 協議해서 決定할 問題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음.
- 북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북한의 태도에 관계없이 우리의 基本原則을 一貫되게 밀고 나가는 것이며, 北韓은 強者하고만 對話하려고 하지 弱者와는 對話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임.
- 북한이 현재 에너지問題, 食糧問題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틀림없으므로 改革과 開放을 해야 한다는 政策問題가 언젠가는 대두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
- 中國의 경우 政治는 1黨으로 하고 經濟는 資本主義 論理를 도입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北韓도 中國을 模倣할 것으로 보여지며 이 시점에서 內部的인 정책싸움이 심각해질 것으로 생각되는 바 이 過程을 추적하면 有用할 것임.

## 金 宇 中 顧 問

- 私見임을 전제로 본인의 意見을 솔직히 피력하고자 함. 北韓經濟의 問題點은 크게 原油와 食糧問題임.
- 북한에는 精油工場이 두 개 가동되고 있는데 한 공장의 精油能力은 약 6만배럴 정도로 北韓의 總 精油能力은 약 12만배럴 정도인데 반은 蘇聯에서 반은 中國에서 도입하여 왔음.
- 그동안 蘇聯은 북한에 現金決濟를 要求하여 原油供給이 中斷된 상태이며, 中國은 금년까지도 협정에 의하여 原油를 供給하고 있는데 清算去來 비슷한 방식으로 原油를 6만배럴 정도 供給받고 있으나 충분한 양이 되지 못하고 있음.
- 나머지 6만배럴중 리비아 등에서 軍事物資의 供給代價로 약 3만배럴 정도를 導入한 것으로 알고 있음.
- 따라서 北韓이 제일 필요로 하는 原油供給問題는 해결이 되고 있지 않으나, 본인의 북경체제중 中國政府와 北韓의 對外貿易部間에 내년도 去來方式에 대한 會議가 있었으며, 여기서 清算去來方式으로 계속 交易하기로 協議되었다고 함.
- 이렇게 볼 때 原油는 대략 3만배럴정도로 지금 時勢로는 대략 1억불 정도가 모자라는 것으로 推定됨.
- 北韓의 食糧問題는 연간 약 150만톤 정도 필요한데 옥수수 등 雜穀을 기준으로 볼 때 약 1억불 정도면 解決될 수 있다고 보여짐.
- 그동안 北韓의 去來는 社會主義國家들과 清算去來 方式으로 되어왔기 때문에 原料를 도입·가공하여 加工料로 工場을 運營하고 남는 것으로 國民에게 供給하여 왔으나 現金決濟方式으로 변천됨에 따라

北韓製品的 質이 좋지 않아 많은 物量이 수출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  
에 따라 공장이 가동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현재 여러나라에서 특히 대만이 北韓의 공장을 利用하여 原料를 提  
供하여 製品을 加工하는 投資가 增大되고 있어 본인 생각으로는 북  
한의 실력으로 보아 마케팅만 잘하여 去來線만 確保한다면 加工貿易  
은 빠른 속도로 發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섬유제품은 우리가 원단 및 재단을 供給하여 北韓에서 製品을 만드  
는 경우 현재 우리나라의 製品보다도 낮게 만들 수 있을 정도임.
- 北韓이 현재 經濟的으로 어려워서 견딜 수 없지 않겠는가 하는 시각  
보다는 武器를 구입하는 등 外貨를 浪費하지 않는다면 본인 생각으  
로는 3~5년이면 北韓이 自立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
  - 이는 우리의 60년대와 같이 原料를 加工하여 量產體制에 들어가면  
재료값이 싸게 먹히고 輸出하고 남는 제품을 住民에게 供給할 수  
있는 것으로 먹고, 자고, 입고 하는 問題의 解決에는 3~5년이 걸  
린다고 보여지나 다만 原油의 持續的인 供給이 가능한지가 關鍵이  
라고 생각함.
- 앞으로 外交나 國家政策의 방향은 理念問題에 있지 않고 國家的 實利  
問題에 있다고 보며, 對北政策에 있어서는 보다 進步的 方向에서 基  
本政策을 수립한 후 一貫性있게 推進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북한측에서 우리의 海外建設現場에 북한의 勞動力을 活用하여 달라  
는 要請이 있는 바 이렇게 된다면 여러가지 長點이 있을 것으로 보  
여짐.
  - 즉 우리의 海外建設 人力을 30만명으로 볼 때 그 1/10인 3만명의

北韓人力을 사용할 경우에 1인당 월 100\$ 정도만 北韓으로 送金한 다해도 월간 300만\$ 정도의 外貨가 北韓으로 送金될 수 있음.

- 우리 입장에서 北韓 勞動力을 活用하면 언어문제가 없으며 生産性이 좋아 經費節減을 이룰 수 있으며, 특히 海外建設現場 經驗을 한 北韓勤勞者들의 海外見聞이 자연스럽게 北韓內에 波及됨으로써 北韓社會開放에 큰 寄與를 할 것으로 豫상됨.

#### 韓 豹 瑣 顧問

- 제 2 차대전 종전 직후 美國의 경우 蘇聯을 把握하기 위하여 學界, 政界, 企業家 등을 총망라하여 하버드大學에 蘇聯學研究所를 設置하여 蘇聯에 대한 資料를 分析·研究한 결과 蘇聯에 대한 충분한 理解를 통하여 자신있게 對蘇聯政策을 推進하였던 歷史的 經驗이 있었음.
- 南北關係와 관련하여 우리도 北韓의 行態類型을 심도있게 파악하여 올바른 對北政策을 樹立할 수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한 깊은 研究가 必要하다고 생각함.

#### 慎 道 晟 顧問

- 獨逸統一 이후 우리도 獨逸式의 吸收統一政策을 채택해야 한다는 주장이 統一問題 세미나 등에서 제기되곤 하는데 본인은 慎重論을 주장하고 싶음. 北韓이 東獨보다는 훨씬 強力한 體制이고, 우리 남한 사정도 서독하고는 많이 다르기 때문임.
- 우리는 長期的인 안목을 가지고 統一政策을 推進해야 하며 短期的인 可視的 成果만을 重視하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함.



현재로서는 모든 機會를 포착하여 모든 方面에서 對話와 交流를 지속시켜 나가야 할 것임.

- 北韓에 統一顧問會議와 유사한 기구가 있다면 相互交流를 갖자는 제의를 副總理에게 要請한 바 있지만 북한과의 이러한 모임과 교류를 肯定的으로 檢討해 주기를 재촉구함.

#### 金 賢 子 顧問

- 金宇中 顧問의 말씀중 우리 기업의 제3국 建設現場 등에 일부라도 北韓勤勞者를 고용하자는 주장에 共感을 표하며 이에 대한 政府側의 見解를 알고 싶음.

#### 白 善 燁 顧問

- 1967년경에 駐蘇大使를 하다 蘇聯에 亡命하여 현재 민스크에 거주하고 있는 이상조 씨를 만나 북한의 崩壞 내지는 變化可能性에 대하여 논의한 바 北韓體制가 상당히 오래 지탱될 것이라는 얘기를 들은 바 있음.
- 현재 南北關係의 진전상태에 대해 여러 논의가 있는데 鄭周永 會長의 금강산개발, 金宇中 會長의 방북협약 등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것인지, 정부는 일관성있는 對北政策을 취하고 있는 것인지, 南北關係의 進展을 沮害하는 要因은 무엇인지 납득할만한 說明을 듣고 싶음.
- 金日成의 사망을 비롯한 北韓의 돌변사태 발생에 對備한 우리측의 對策樹立 與否와 內容을 알고 싶음.

## 【副總理 答辯】

- 고문님들께서 여러문제에 대해 심도있는 자문말씀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政策決定과 推進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음.
- 현재 南北關係에 있어 問題의 核心은 白善燁 고문님의 말씀과 같이 對北政策의 一貫性 與否에 있는 것임을 잘 알고 있음.
  - 6공화국 출범이후 7·7宣言, 한민족공동체 統一方案 發表, 유엔 同時加入 등을 주축으로 하는 對北政策이 南北間 緊張緩和에 크게 寄與하여 왔음은 분명한 사실임.
  - 정부의 對北政策중 가장 중요한 것이 궁극적으로는 統一이지만 統一의 過程에서는 南北間의 緊張緩和, 交流, 和解의 3가지 측면에서 相互理解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함.
  - 그 중에서도 우리는 다른 分斷國들과는 달리 동족상잔의 6.25戰爭을 經驗했고, 그 이후에도 북측의 對南赤化戰略에 입각한 전복책동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이를 中斷시키도록 유도하고 戰爭의 手段을 통하여 統一하려는 시도의 完全遮斷이 무엇보다도 重要한 것임.
  - 이를 위한 問題의 核心이 北韓의 核開發 與否인데 우리는 南北對話를 시작하면서 北韓이 南北關係의 진전을 위해 核開發을 拋棄하리라 생각하였으나, 오히려 현재까지도 疑惑만을 增幅시키고 있는 상황임.
  - 北韓이 核武器를 보유하지 않고 있으며, 核武器를 開發할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는 確證만 있다면 南北關係는 근본적으로 달라질 것으로 생각되며, 政府는 이 문제만큼은 확실히 解決하고 나가고자 함.

- 朴東鎭 顧問께서 말씀하신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英國의 國際戰略問題研究所 資料에 의한 南北韓 軍事力比較를 보면 北韓軍事力の 增強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려운 經濟事情속에서도 軍事力 增強에 注力하고 있음은 우리에게 많은 우려를 주고 있는 실정임.
- 北韓의 經濟難이란 북한 주민들의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住民들에 대하여는 配給이 70%이하로 낮춰졌음에도 불구하고, 軍人들에 대하여는 80%이상의 配給을 하고 있음.
- 北韓의 食糧事情이 폭동을 유발할 만큼 심각한 것이냐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첩보에도 불구하고 確證이 없는 상태이며, 또한 經濟難이란 相對的인 概念으로서 閉鎖體制인 北韓住民들로서는 심각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임.
- 北韓의 核開發에 대한 의혹은 南北對話를 시작할 때보다도 더욱 增大되고 있는 것이 문제임. 北韓이 IAEA의 査察을 받고 있다고는 하지만 疑心解消보다는 疑惑이 더 커지고 있는 실정임.
- 北韓은 核武器의 保有가 핵포기를 둘러싼 對外協商時 고지를 확보할 수 있는 戰略的 利點이 있으며, 對南赤化統一政策에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IAEA査察만으로는 北韓核存在 與否에 대한 완전한 査察이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 문제의 해결이 무엇보다도 重要的 課題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람.
- 愼道晟 顧問께서 촉구하신 顧問會議의 南北交流問題는 아직 제기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 北韓內에서의 對北接觸은 核問題와 관련하여 規制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더 時間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함.
- 북한내에는 우리의 顧問會議와 유사한 諮問機構는 없다고 보여지

며 祖國平和統一委員會 分科委員會가 어떨지 모르겠으나 좀더 研究해 보도록 하겠음.

○ 金字中, 金賢子 顧問께서 말씀하신 北韓勞動者의 海外工事現場 고용 문제는 肯定的으로 檢討할만한 사안으로 政府에서도 이미 檢討한 바가 있음.

一 海外建設人力 全員을 北韓人力으로 하는 경우와 一部만을 北韓人力으로 하는 경우를 상정하여 檢討해 보았는데 첫번째 경우는 北韓指令에 의한 돌연한 工事中斷事態 發生可能性이 있으며, 두번째 경우는 思想武裝이 철저한 北韓勞動者들이 우리 勤勞者들을 포섭하여 罷業, 暴動 등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날 가능성과 직책상 技術指導를 하게 될 우리측 人員들과 差別待遇問題 등으로 感情問題가 야기될 수도 있는 등 우려할 점도 있으므로 추후 더욱 많은 檢討가 必要하다고 봄.

#### 閔寬植 議長

○ 오늘 會議의 자문말씀이 매우 진지했던 것으로 생각하며 연내 顧問會議를 다시 한번 開催토록 推進하겠음.

## 2. 海外僑民과의 對話活動(海外視察)

### (1) 一般事項

#### 가. 視察目的

- 海外僑民들과의 國民적 유대를 強化하고 그들을 위로·격려하는 한편 우리의 統一政策에 대한 理解와 共感帶를 擴散
- 訪問國의 諸般情勢 및 僑民들의 統一輿論을 파악함으로써 統一政策 諮問의 實效性 提高
- 南北韓關係의 現황과 전망에 대한 僑民들의 理解를 증진하고 南北韓 懸案問題에 대한 僑民들의 協調를 誘導

나. 視察期間 : 1992. 11. 5(木)~11. 15(日), (10박 11일)

다. 視察國家 :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호주(3個國)

#### 라. 視察團(13名)

- 視察顧問(10名) : 金判述(團長), 金榮禎, 金 滌, 金致烈, 金賢子  
朴東鎭, 吳綠園, 李亨根, 趙香祿, 崔浩中
- 隨行員(3名) : 金弘宰, 李永石, 李燦鎬

(2) 主要 活動事項

일 자	지 역	활 동 사 항
11. 6 (金)	싱가포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顧問團 主催 僑民招請懇談會(晚餐)</li> <li>— 안동진 僑民會長 등 28명 參席</li> <li>— 南北韓關係의 現況 및 展望, 南北韓 經協 및 核問題, 南北對話 進行狀況 說明 및 質疑應答</li> <li>— 現地 韓人學校設立 激勵金傳達</li> <li>— 弘報冊子 (2種) 傳達</li> </ul>
11. 7 (土)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韓昌植 大使 主催 晚餐</li> <li>— 싱가포르 및 大使館現況 브리핑</li> <li>— 現地 僑民社會現況 브리핑 및 애로사항 聽取</li> </ul>
11. 8 (日)	인도 네시아 자카르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金在春 大使 主催 晚餐</li> <li>— 인도네시아 및 大使館現況 브리핑</li> <li>— 現地 僑民社會現況 브리핑 및 애로사항 청취</li> </ul>
11. 9 (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顧問團 主催 僑民招請懇談會(晚餐)</li> <li>— 송은호 僑民會長 등 35명 參席</li> <li>— 北韓의 對南顛覆戰術 不變 立場, 南北韓 人的交流 現況, 間諜團事件, 北韓의 核開發問題, 宗教團體의 對北接觸問題, 訪北者의 證言內容, 統一費用 등에 관한 說明 및 質疑應答</li> <li>— 現地 韓人學校設立 激勵金傳達</li> <li>— 弘報冊子 (2種) 傳達</li> </ul>

일 자	지 역	활 동 사 항
11.13 (金)	호 주 시 드 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顧問團 主催 僑民招請懇談會</li> <li>- 추은택 僑民會長 등 41명 참석</li> <li>- 국내정치 상황 및 大統領의 政治的 中立宣言의 意味 說明, T/S再開問題, 間諜團事件, 北韓의 核武器開發問題 등 南北關係 懸案問題에 대한 質疑應答</li> <li>- 弘報冊子 (2種) 傳達</li> </ul>
11.14 (土)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金永善 總領事 主催 晚餐</li> <li>- 호주 및 영사관現況 브리핑</li> <li>- 現地 僑民社會現況 브리핑 및 애로사항 聽取</li> </ul>

### (3) 僑民招請懇談會

#### 가. 日 程

日 時	地 域	場 所	參 席
11. 6	싱 가 포 르	샹그릴라호텔	28명
11. 9	인 도 네 시 아	힐튼 호텔	35명
11.13	호 주	한 국 식 당	41명

#### 나. 進行順序

- 相見禮→顧問團 紹介→僑民紹介→南北關係 現況說明→質疑→應答

#### 다. 南北關係 現況說明

- 6共和國 政府는 變化하는 國際情勢의 好機를 活用하여 社會主義 國家와의 關係正常化를 통해 北韓의 開放과 變化를 유도하는 間接接近

戰略의 개념에 입각한 北方政策을 推進하여 왔음.

- 이러한 정책적 기초하에서 盧泰愚 大統領께서는 89년 7월 7일 『民族自尊과 統一繁榮을 위한 大統領 特別宣言』을 發表하여 남북간 불신과 대결을 종식하고 民族共同體로서의 關係發展과 平和定着의 興件造成을 위한 制반조치를 闡明하였음.
- 北方政策의 成果는 지난 5년간 여러가지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南北間에도 和解와 協力時代의 開幕이라는 歷史的 成果를 거두었음.
- 政府가 闡明하고 있는 統一方案인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는 南北이 서로의 差異를 認定하는 가운데 過渡段階인 南北聯合段階를 거쳐 統一憲法을 채택하여 自由와 人權과 幸福이 보장되는 單一民主國家를 달성하는 統一過程을 상정하고 있음.
- 南北基本合意書가 採擇된 現단계는 南北聯合段階로의 進入直前段階로 보여지고 있으며, 南北이 基本合意書를 성실히 履行한다면 금세기안에 統一이 반드시 達成될 수 있을 것임.
- 우리가 지향하는 統一은 東西獨이 統合되었던 吸收의 방식이 아니라, 北韓의 開放과 變化를 통하여 北韓住民의 福祉水準이 向上된 상태에서 쌍방의 意思가 존중되는 合意에 의한 統一이며, 이러한 統一方式이야말로 統一獨逸이 겪고 있는 심각한 統一後遺症과 統一費用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合理的인 統一方法이라 하겠음.
- 최근 舊蘇聯과 東歐諸國의 崩壞는 지난 100년간 세계의 절반을 지배 하였던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완전한 실패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러한 와중에서 北韓은 變化와 開放의 壓力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直面하고 있음.



- 北韓으로서는 體制의 孤立과 閉鎖性을 계속 고집하느냐 아니면 變化와 開放으로의 새길을 모색하느냐 하는 岐路에 서 있으며, 對內的生存을 위해 住民統制를 強化하는 한편, 對外的生存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開放의 길로 나올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北韓體制의 기묘한 二重政策이 계속 實效性을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며 對內·對外間 均衡이 깨어질 경우 어떠한 突發事態가 일어날지 모르는 危險한 狀況이 도래하게 될 것임.
- 우리가 北韓體制에 대해 가지고 있는 최대의 우려는 바로 이러한 不可豫測性이므로 北韓의 對內外 政策을 孤立과 閉鎖性 固守에서 自由化와 民主化로 轉換시키는 데 對北政策의 焦點을 맞추고 있음.
- 8차에 거쳐 진행된 南北高位級會談은 南北高位當局者間에 개설된 公式的 南北對話 채널로서 그동안 南北基本合意書, 非核化共同宣言, 附屬合意書, 分野別 共同委構成 등 劃期的인 成果를 거두었으며, 앞으로 계속 發展시켜 나갈 것임.
- 南北關係를 기본적으로 規律하게 될 南北基本合意書는 그 法的 性格을 떠나서 南北間 和解·不可侵 및 交流協力을 한차원 높게 발전시키기 위한 歷史的 章典으로서 南北이 그 內容을 遵守·實踐해 나가므로써 그 歷史的 意義가 더욱 빛날 것임.
- 작년 연말에 어렵게 타결된 『韓半島 非核化共同宣言』은 核武器의 製造, 接受, 保有, 使用을 禁止하고 核再處理施設 및 우라늄濃縮施設의 保有를 禁止하며, 그 實施 및 檢證을 위해 核統制共同委員會를 構成·運營하며 南北間 相互核査察을 實施하기로 合意한 文件임.
- 政府는 北韓의 核武器 開發疑惑을 解消하고 韓半島의 진정한 非核化

를 達成하기 위하여 작년 11월 8일 『韓半島의 非核化와 平和構築을 위한 宣言』을 통하여 核再處理施設 및 우라늄濃縮施設의 不保有를 闡明하였고, 12월 18일 『核不在宣言』을 内外에 闡明하여 이를 公式 確認하였음.

- 진정한 韓半島 非核化를 위한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北韓은 合意事項인 南北韓 相互核査察을 계속 거부하여 南北和解와 交流協力 實現에 장애를 야기하고 있음.
- 또한 최근 間諜團事件에서 立證된 바와 같이 對南顛覆戰略을 포기하지 않고 있고, 離散家族問題의 解決에도 성의를 보이지 않는 등 기존의 태도에 變化를 보이지 않고 있음.
- 따라서 政府는 南北韓 關係는 核問題의 진정한 解決없이는 진전될 수 없으며, 人道的 次元의 離散家族問題는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優先하여 解決되어야 한다는 基本認識下에 北韓과의 經濟交流協力は 慎重하게 推進되어야 한다는 立場을 견지하고 있음.
- 전세계에 걸쳐 진출하고 있는 우리 僑民社會는 우리 민족의 커다란 자산이며 자랑으로 南北統一을 향한 우리 民族의 역량을 집결시켜야 하는 지금, 교민 여러분의 理解와 協調는 南北統一의 커다란 밑거름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지속적인 激勵와 協調를 당부함.

## 라. 質疑 및 答辯內容

### 싱가포르 교민 김 장 열

- 南北基本合意書가 發效된 것은 南北統一을 위한 歴史的인 成果라고

평가되지만, 과거 『7·4 南北共同聲明』처럼 단지 宣言的인 意味만을 가진 紳士協定에 불과하지 않는가?

#### 崔 浩 中 顧問

- 南北基本合意書가 南北關係에 있어 歷史的인 意義를 갖는 것은 처음으로 남과 북의 高位責任者(總理)가 공개리에 만나 會談을 갖고 合意를 導出했다는 것임.
- 따라서 合意書의 서명란도 쌍방의 國號와 首席代表의 정부내 公式職名으로 표현되어 엄연히 구속력이 있는 南北間基本關係에 관한 規範인 것임.
- 그러나 基本合意書 내에서도 표현되었듯이 南北間의 關係는 國家와 國家와의 관계가 아니라 統一을 지향하는 過程에서 發生하는 特殊한 關係이므로, 基本合意書는 國家間의 權利關係를 規律하는 條約이 아닌 南北韓間에 존재하는 特別한 성격의 規範인 것임.

#### 싱가포르 僑民 김 광 렬

- 최근 이라크에 대한 IAEA의 特別査察이 이루어진 것으로 아는데 北韓이 核武器를 開發하고 있다는 國際的 疑惑이 제기되고 있는 바, 北韓의 核武器開發은 韓民族 全體에 재앙을 일으킬 危險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막아야 함. 이에 대한 政府의 對策은 무엇인가?

#### 崔 浩 中 顧問

- IAEA의 査察결과 드러난 北韓의 核開發정도는 發電用量 5Mw급 시

험용 원자로 정도로 原始的인 技術로 인해 그 安全性에 問題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또한 核物質을 이미 抽出하여 地下施設에 은닉하였을 가능성이 농후하여 매우 危險스런 단계에 와 있다고 보여짐.

- 政府는 韓半島의 非核化를 추진한다는 基本政策을 樹立하여 작년에 核再處理, 濃縮施設 不保有宣言과 韓半島 核不在宣言 등 일련의 非核化 政策을 일관되게 推進하였으며, 작년말에는 北韓과 韓半島 非核化에 관한 共同宣言에 署名하였음.
- 그러나 北韓은 非核化의 요체라 할 수 있는 南北間 相互核査察을 여러가지 구실을 붙여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더욱 더 우리의 疑惑을 증폭시키고 있음. 國際的으로도 北韓이 相互査察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壓力이 가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北韓은 相互査察에 응해야 할 것이며, 이에 관한 僑民 여러분의 理解와 協調를 부탁드립니다.

#### 싱가포르 僑民 정 원 상

- 남과 북이 政治的인 理由로 分斷이 되었다고 하지만 分斷의 직접 피해자는 남과 북에 흩어진 離散家族들임. 政府에서는 北韓과의 관계를 改善한다고 하면서 經濟交流에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離散家族問題에는 소홀히 대처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음. 離散家族問題 解決에 대하여 政府가 가지고 있는 方案은 무엇인가?

#### 崔 浩 中 顧問

- 離散家族問題는 南北分斷의 최대의 아픔이며 政府가 가장 우선하여 解決하여야 할 問題임. 그동안 離散家族問題는 南北赤十字間에 주로

논의되어 왔으나 北韓의 무성의한 태도로 인하여 해결에 난항이 계속되어 왔었음.

- 90년도부터 개최되어온 南北高位級會談에서는 政府最高當局者間에 離散家族問題 해결을 위한 討議가 심도있게 이루어져 왔고 간혹 시범적으로 소수 離散家族의 相逢이 주선되었지만 아직은 크게 미흡한 단계임.
- 지난 5월 서울에서 열린 제 7차 高位級會談에서 남과 북은 8.15解放을 기념하여 老父母離散家族의 서울, 평양 交換訪問에 전격 合意하였으나 北韓은 여러가지 주장을 내세워 이 계획을 무산시켰음. 政府에서는 앞으로도 離散家族問題의 해결에 다각적인 노력을 계속할 것이고, 離散家族問題를 南北對話의 最優先課題로 設定하여 북측과 협의해 나아갈 것임.

#### 인도네시아 僑民 서 민 수

- 최근 밝혀진 間諜團事件을 보면 北韓이 南韓을 共產化하려는 既存態度를 그대로 고집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政府의 評價는 어떤 것인지?

#### 崔 浩 中 顧問

- 北韓이 기존의 對南顛覆戰略을 그대로 維持하고 있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同感하며 우리 政府도 그러한 對北認識을 견지하고 있다고 보여짐. 따라서 지금 제기되고 있는 北韓의 核武器 開發疑惑은 民族의 안위와 직결된 問題인 만큼 철저하게 규명되어야 할 것이고, 北韓도

南韓과의 經協을 推進하기 위해서는 그 先決要件으로 核施設을 國內  
外에 公開하여야 할 것임.

#### 李亨根 顧問

- 北韓의 對南顛覆戰術은 不變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명심해야 함.  
北韓의 최근 유화제스처는 戰術의 變化일 뿐 基本戰略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낙관도 비관도 금물임.  
北韓의 軍事力을 보면 陸軍만 100만 이상이고 최근 ABC(Atomic  
Biological, Chemical) 作戰 強化의 움직임이 보이는 것으로 봐서  
北韓의 基本戰略은 그대로인 것으로 보임.

#### 인도네시아 僑民 신 교 환

- 南北高位級會談이 성사되어 南北을 오가며 여러차례 會談이 열린 것  
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故鄉訪問團 交換에 合意하여 놓고도 실현되  
지 않는 것을 보면 政府가 지나치게 저자세로 協商에 임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우려가 생김. 北韓은 망해가고 있기 때문에 북한을 孤  
立시키거나 內部變化를 기다리면 되는 것이지 저자세로 協商에 임할  
필요가 있는가?

#### 崔浩中 顧問

- 統一問題를 보는 시각에는 根本的으로 서로 다른 두 가지의 立場이  
있을 수 있음.
- 첫째는 東歐諸國의 몰락과 共產主義의 완전한 失敗로 인해 北韓은

이제 國際的으로 더욱 더 孤立되고 對內的으로도 극심한 經濟難이 가중되어 멀지 않은 장래에 滅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政府가 쓸데 없이 북한과 對話 내지 協商을 하지 말고 自體崩壞를 기다리면 된다는 입장으로 일종의 統一政策 無用論이라 할 수 있음.

- 다른 하나는 金日成 내지 共產主義는 밋지만 北韓의 급격한 滅亡은 우리 民族全體의 不幸을 招來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住民의 安全과 幸福이 向上될 수 있도록 北韓을 서서히 開放·變化시켜야 한다는 입장임.
- 統一만 하면 된다는 統一至上主義는 통일후 우리 民族의 모습을 도외시하는 無責任한 主張이라 아니할 수 없고, 統一은 반드시 民族의 自由와 人權과 幸福이 보장되는 형태로 達成되어야 한다는 目標意識이 要求된다고 하겠음.
- 政府에서는 앞의 두번째 입장에서 北韓住民의 自由나 福祉를 향상시켜 바람직한 형태의 統一을 이끌어 낸다는 政策目標下에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남북대화에 임하고 있지만, 제기하신 問題點을 염두에 두고, 南北對話에 보다 의연하게 임할 것으로 기대됨.

#### 인도네시아 僑民 신 교 환

- 김일성이 1995년을 統一元年으로 宣稱한 진의는 무엇이며 南北統一이 이루어질 경우 동·서독의 경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엄청난 費用이 들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政府의 對備策은 무엇인가?

## 崔 浩 中 顧 問

- 金日成이 주장하는 1995年 統一說은 어떤 理論的 根據에 의한 것이 아니라 최근 東歐 共產主義國家의 몰락현상이 北韓 內部로 침투하지 못하게 하려는 對內 結束強化用 미봉책에 불과한 것임.
- 한편으로는 勞使紛糾나 學生問題 등 남한내부에 잠재하고 있는 不安 要素들을 過大評價하여 決定的인 誤判을 하고 있다는 證據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社會內部的 安定이 무엇보다 重要하다고 보여짐.
- 東·西獨이 겪고 있는 統一後遺症과 費用問題로 인해 우리 社會에서도 統一이후에 치루어야 하는 막대한 統一費用에 관한 우려가 높아져 가고 있지만, 統一費用은 소모적인 소비가 아니라 投資의 概念으로 인식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統一費用을 미리 確保한 후에 統一을 하자는 주장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됨.
- 따라서 費用問題는 多多益善의 概念으로 인식하여 統一을 推進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確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政府에서도 이러한 점을 인식하여 基金擴充努力을 하고 있을 것임.

## 인도네시아 僑民 성 인 용

- 民主平統은 政府施策의 일방주입단체인가 아니면 政府諮問機關인가 또 統一顧問會議와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또한 統一顧問들은 民間의 代表로서 北韓을 직접 訪問해서 그곳 사정을 직접 把握하는 것이 必要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할 用意는 없으신지 묻고 싶음.



### 崔 浩 中 顧 問

- 民主平和統一諮問會議는 憲法에 明示되어 있는 憲法機關으로서 國內  
는 물론 海外僑民 여러분의 統一과 國政에 관한 意見을 收斂하여 大  
統領의 國政運營 全般에 대한 효율적인 諮問을 위해 構成되어 있는  
機關으로 본 시찰단이 소속되어 있는 統一顧問會議와는 別個의 機關  
임을 이해하시기 바람.
- 統一顧問의 北韓訪問 必要性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저희 統一顧問團  
도 언급하신 意見에 전적으로 同意하고 北韓訪問이 北韓의 實情把握  
에 무엇보다도 效果的이라는 데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北韓은 自  
己體制 維持·強化에 도움이 되는 人士만을 招請하기 때문에 統一顧  
問團의 訪北에는 어려움이 많음.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北韓訪問이  
實現될 수 있도록 계속 努力해야 하겠음.

### 인도네시아 僑民 성 인 용

- 南北關係에 있어서 쌍방은 相對方의 意見을 경청하고 理解하기 보다  
는 自己主張만을 되풀이하고 있어 효과적인 南北對話가 達成되기 어  
려운 면이 있는데, 政府에서는 北韓에 대한 理解와 知識을 얻기 위  
해 어떠한 努力을 하였으며, 北韓의 核問題를 經協과 連繫하지 말고  
北韓 核을 우리 무기로 흡수할 수는 없는가?

### 崔 浩 中 顧 問

-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6共和國 政府는 北韓을 대결의 상대가 아니  
라 對話의 相對로 인식하는 發想의 大轉換을 기초로 해서 南北對話

를 推進해 왔으나, 北韓의 閉鎖性때문에 필요한 北韓情報를 적시에 획득할 수 없는 限界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北韓 內部事情에 관한 정통한 資料蓄積이 이루어지지 못한 면도 있다는 점은 인정됨.

- 그러나 政府次元에서는 直·間接의 通路를 이용하여 北韓 內部事情에 관한 情報蒐集에 진력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훨씬 좋은 방향으로 改善될 것으로 보여짐.
- 核問題에 관하여 언급하셨는데 北韓은 이미 核擴散防止條約에 加入한 바가 있기 때문에 核을 개발할 수도 없고 국제사회에서도 그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임. 核을 平和的으로만 이용하자는 것이 동조약의 合意事項이기 때문에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는다고 강변만 할 것이 아니라 비핵화공동선언에서 합의된 南北相互査察에 즉각 응하여야 할 것임.

#### 인도네시아 僑民 김 기 하

- 최근 國內外에 계신 목사님들의 訪北이 활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에 대한 政府의 立場은 어떤 것이며, 北韓의 宗教實態에 대한 방북 목사님들의 見解는 어떠한 것인가?

#### 崔 浩 中 顧問

- 南北間의 人的·物的 往來를 規律하고 있는 南北交流協力에 관한 法律에 의하면 海外에 계신 분들은 申告만 하시면 北韓訪問이 可能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목사님들의 訪北은 여러가지 肯定的인 效果가 기대되지만 北韓의 宗教團體가 당국의 조종을

받고 있는 形式的인 存在이기 때문에 기대하는 만큼의 實效性은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趙 香 祿 顧問

- 海外에 계신 목사님들 중에는 北韓에 대한 肯定的인 입장에 계신 분과 否定的인 입장에 계신 분들이 있고, 또한 北韓을 訪問하셨던 분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음.
- 목사님들의 北韓訪問은 유익한 면도 있으나 좀더 公式化하여 南韓宗敎團體의 高位人士들이 함께 北韓의 宗敎實態를 직접 보고 公式的으로 그 실상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그래서 南韓內 7大 宗敎의 指導者들이 모여서 가칭 南北宗敎指導者 交流協議會 명의로 統一院에 訪北申請을 하였으나 北韓의 反應이 없어서 實現되지 못하였음.  
카톨릭에서는 로마교황청을 통해서 訪北한 결과 北韓의 카톨릭은 카톨릭이 아니라고 公式 否認한 것으로 알고 있음.
- 訪北者들의 北韓에 대한 評價는 사람에 따라 다르고 個人의 先入觀이 介入될 여지가 많아 客觀적이고 精確한 評價라 할 수 없기 때문에 訪北者들의 生생한 證言內容을 統一院에서 蒐集·整理할 필요가 있음.

### 호주 僑民 김 수 영

- 최근 韓美安保年例會議에서 내년도에 팀스피리트 訓練을 재개하기로 하였는데 이 조치가 南北關係 發展에 있어서 바람직한 일인가?

### 崔 浩 中 顧 問

- 南北韓 基本合意書가 지난 2월에 發效되어 武力不使用에 合意하였지만, 軍事訓練 自體를 禁止한 것은 아니고 事前에 通告하면 可能的 것으로 되어 있음.  
더우기 잘 아시다시피 팀스피리트 訓練은 攻擊訓練이 아닌 防禦訓練이며 이 사실은 폴란드, 체코 등 共產圈 軍關係者가 訓練을 參觀하고 認定한 것이기 때문에 재론의 여지가 없는 것임.
- 政府는 그동안 北韓이 팀스피리트 訓練을 문제삼아 南北對話에 장애를 일으켜온 점을 인식하여 쓸데없는 誤解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 팀스피리트 訓練中斷을 결정하였으나, 최근 北韓이 間諜團事件 및 核査察拒否 등 南北基本合意書의 履行과 遵守를 외면하는 등 南北對話 全般에 걸쳐 無성의한 態度를 보이고 있는데 대응하여 팀스피리트 訓練을 再開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음.
- 최근 南北對話에 임하는 우리들의 자세가 너무 低姿勢이고 얻을 것은 얻지 못하고 모두 다 빼앗긴다는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 팀스피리트 訓練 再開決定과 같이 할 얘기는 하면서 南北對話에 임하는 자세가 重要하다고 봄.

### 호주 僑民 김 수 영

- 최근 발표된 間諜團事件은 그 規模나 人的構成에 있어서 커다란 衝擊을 안겨 주었는데, 혹시 이번 間諜團事件 發表가 大選政局을 유리하게 이끌어 가기 위한 조작이 아닌가?

## 金 判 述 顧 問

- 盧泰愚 大統領의 中立宣言과 民自黨脫黨은 진정한 民主化를 위한 귀중한 決斷으로 評價되어야 하고 民主化를 통한 大韓民國의 發展에 重要的 礎石이 될 것임. 이번 間諜團事件을 두고 일부에서는 大統領 中立宣言 이후에 오래된 사건을 發表하는 것이 12월에 실시되는 大統領選舉에 있어 特定候補를 유리하게 하기 위한 공작차원의 조작이 아닌가 하는 疑心이 있는 것이 事實임.
- 그러나 남북이 서로 和解와 協力の 해빙무드에 접어들어 우리 社會의 大북 경각심이 현저하게 改善되고 있는 지금, 北韓의 對南共產化 戰略은 그대로 고수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 모두는 명심해야 함. 北韓이 南北基本合意書를 준수하지 않고 이러한 일을 저지르고 있는 점을 野黨人의 한사람으로서 불쾌하게 생각하며, 大統領이 中立을 宣言하고 中立內閣이 들어서는 등 大統領의 中立意志가 確固한 시점에서, 말씀하신 大選構圖와 相關的 政治的 理由로 이 事件을 조작 발표하였다는 것은 지나친 論理의 비약이라고 생각함.

## (4) 평 가

- 統一顧問視察團의 이번 東南亞視察은 해외에 거주하는 僑民들의 統一觀 및 南北懸案問題에 관한 의식을 파악하고 우리의 統一政策을 弘報하는 데 그 目的이 있었음.
- 이번 視察團은 政府人士出身, 軍人士出身, 宗教分野出身, 女性分野出身으로 構成되어 각 분야를 대표하는 最高專門家들이 해당분야에서

쌓은 經驗과 經綸을 바탕으로 효과적으로 僑民接觸活動을 벌일 수 있었다는 長點이 있었음.

- 남북간 國力格差의 擴大와 北韓의 실상이 訪北者들의 證言에 의해 비교적 소상히 알려지면서, 東南亞 僑民들은 대부분 南韓의 經濟成長과 統一努力에 찬사와 지지를 보내고 있었으며, 北韓의 崩壞를 어느정도 既定事實로 받아들이고 있었음.
- 南北基本合意書, 附屬合意書, 共同委員會 發足 등 南北關係의 進展에 대해서 僑民들은 매우 긍정적이고 희망적으로 보고 있었으며, 한민족의 일원으로서 自矜心을 느낀다는 意見이 지배적이었음.
- 다소 誤解가 있었던 部分으로서는 北韓의 核開發問題, 間諜團事件, 팀스피리트 訓練問題로서 이 부분에 대한 政府의 海外僑民 弘報努力이 더욱 要求되는 것으로 보였음.

### 3. 國民과의 對話活動(地方視察)

#### (1) 視察 概要

##### 가. 目 的

地方行政 및 産業現場을 直接 踏查하여 國政을 把握하고, 地域人士招請 懇談會를 통하여 統一에 관한 各界各層의 意見을 收斂하며, 平和統一意識을 鼓吹·宣揚하는 한편, 統一政策諮問에 필요한 資料를 蒐集

나. 期 間 : 1992. 9. 30(수) - 10. 2(금), (2박 3일)

다. 地 域 : 江原 一員

- 産業施設 : 東양시멘트
- 軍部隊 慰問 : 鴻천 11사단
- 其他 : 권금성, 낙산사, 통일전망대, 오죽헌, 죽서루 등

라. 視察者 : 34명

- 統一顧問 18명, 同夫人 8명  
閔寬植, 金榮禎, 金玉均, 金判述, 金賢子, 朴贊兢, 宋南憲, 慎道晟,  
梁好民, 尹勤煥, 李季順, 李相敦, 李昌熙, 李兌榮, 李亨根, 張盛煥,  
鄭憲柱, 趙香祿

마. 交通便 : 航空機 및 전세버스

## (2) 議長主催 地域人士 招請懇談會

가. 日 時 : '92. 9. 30(수), 19:00 - 21:00

나. 場 所 : 설악파크호텔 화재봉홀

다. 參 席

- 閔寬植 議長 등 顧問(同夫人) 26명
- 속초시·고성군·양양군 地域招請人士 33명

라. 懇談會 主要內容

### 議長 人事

- 江原道知事와 속초·고성·양양군에서 地域發展을 위해 애쓰시는 地域人士 여러분들이 參席하여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림.
- 各界各層의 元老이신 統一顧問들과 地域人士 여러분들간에 좋은 意見交換을 할 수 있는 光장이 되었으면 하며 우리들의 모임을 축복하기 위해서 乾杯를 제안함.

### 李 亨 根 顧問

- 우리모두의 힘찬 發展과 和合을 위해서 乾杯를 부탁드립니다.

### 한 석 룡 江原道知事 人事

- 閔寬植 議長님을 비롯한 統一顧問님들이 統一에 대한 國民的 關心이



그 어느 때보다도 고조되어 가고 있는 때에 江原道地域을 訪問해 주신 것에 대해 眞心으로 歡迎의 말씀을 올리며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림.

- 地域적으로 祖國分斷과 함께 강토가 잘리워지는 비극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살아온 江原道民들이 統一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고 그 意志를 확고하게 정립할 수 있었던 것은 통일고문님 여러분께서 제시해 주시고 또 政府가 적극 推進한 전향적인 統一方案이 國民 모두에게 큰 용기를 불어 넣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함.
- 平和統一의 조속한 達成과 이 자리를 함께 하여주신 모든 분들께 행운과 영광이 있으시길 기원하며 乾杯를 제안함.

### 黃 秀 代 第 3 政 策 官

- 顧問 紹介 (가,나,다 순)

### 李 相 敦 顧 問

- 北韓의 態度變化에 대해서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되며 前方에 있는 軍人들이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함.
- 獨逸에서는 브란트 首相이 69년에 東方政策을 發表하고 동·서독간 基本條約이 締結된 지 20년 후인 89년 11월 9일에 갑자기 동·서독 장벽이 무너졌음.
- 東·西獨 統一은 최근 콜 首相이 言論에서 말하기를 고르바초프와 동·서독간 自由交流의 擴大때문이라고 했음.
- 이렇게 5,000명에서 오십만명으로 증가한 自由交流라는 거대한 홍수

가 東·西獨 統一의 밑바탕이 되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함.

- 南北韓의 離散家族間 故鄉訪問은 실제로 이루어져야 함.

### 閔 寬 植 議長

- 각 地域人士들께서 각 테이블마다 계신 統一顧問들과 意見을 交換하시다가 의문나는 事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람.

### 조 경 식 설악동 주민

- 7차 南北高位級會談때 8. 15 離散家族 故鄉訪問團 合意가 이루어 졌으나 合意書 履行이 안되었음.
- 앞으로 李仁模 씨 送還問題를 檢討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李仁模 씨를 送還할 경우에 離散家族 故鄉訪問이 實行된다고 보는지 아니면 李仁模 씨를 送還해 가지고 우리한테 얻어지는 利益과 잃는 損失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함.

### 趙 香 祿 顧問

- 대체로 民族이 갈라져서 한 세대만 지나더라도 분리된 것에 대해 생각이 희미해지고 現在의 狀況을 自足하고 定着을 하는 것이 보통인데 우리 民族은 分斷후 약 40년 세월이 지났는데도 統一에 대한 열정이 지속되었음.
- 우리는 후세에 分斷을 固定化시킨 責任을 지지 않기 위해서도 統一의 準備를 해야 하며 統一은 우리 생각대로 해야 함.
- 만일 북이 허물어졌을 경우 적어도 1년간은 北韓同胞 1천만명의 衣

食住를 責任질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統一이 되는 過程, 統一後의 問題 등 통일을 위한 具體的인 準備를 해야 할 것임.

### 梁 好 民 顧問

- 政府측에서 讓步를 해도 北은 감동하지 않고 더 要求할 것임.
- 李仁模 씨를 送還했을 경우 또 다른 要求를 할 것임.
- 북쪽에서는 첫째, 強硬한 要求를 할 경우 남쪽이 반드시 들을 것으로 보고 이를 이북동포들에게 宣傳하려는 意圖와 둘째, 北으로 넘어간 사람들이 金日成의 힘을 過信한다는 측면을 생각할 수 있음.
- 우리 政府가 緩和政策을 써서라도 離散家族을 面會시키겠다는 의도는 靚찮으나 북쪽에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絶대로 全面的으로는 안 하고 制限해서 할 것임.
- 가령 面會所를 設置할 때 罪人은 안된다고 북쪽에서 提案할 경우 북쪽에서 볼 때 北側制度가 싫어서 越南한 사람은 모두 罪人이 되기 때문에 순탄치 않다고 봄.
- 離散家族찾기는 經濟홍정, 犯罪者, 犯法者問題와는 별개인 戰爭後 處理問題로서 人道主義的인 問題이기 때문에 敵國끼리도 하는 것으로 북측이 이것을 條件附로 去來하려고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함.

### (3) 副總理主催 地域人士 招請懇談會

가. 日 時 : '92. 10. 1(목), 18:00-20:00

나. 場 所 : 경포비치호텔 그랜드볼룸

#### 다. 參 席

- 金判述 顧問(同夫人)등 25명
- 강릉시·동해시·삼척시·명주군·삼척군 地域招請人士 169명
- 院內:副總理, 統一政策室長, 第3政策官

#### 라. 懇談會 主要內容

##### 副總理 人事

- 오늘 이 조출한 모임에 江原道 副知事님을 비롯해서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명주군, 삼척군에 계신 여러 地域人士님들이 많이 參席해 주셔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또 기쁘기 한량없음.
- 離散家族들이 많이 있는 江原地域은 南北關係의 變化에 깊은 關心을 갖고 統一問題에 대해 남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이 많기 때문에 機會 있을 때 江原地域 여러 인사님들과 얘기를 나누고 싶었음.
- 남과 북은 오랜 對決과 競爭의 시대를 清算하고 和解와 協力の 새 시대를 열어가는 轉換期에 직면해 있으며, 특히 지난 9월 15일 부터 9월 18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된 第8次 南北高位級會談에서는 「南北基本合意書」의 和解·不可侵·交流協力分野 附屬合意書 및 南北和解共同委員會 構成·運營에 관한 合意書を 採擇·發效시켰음.
- 지난 2월 19일에 南北間에 合意 發效된 基本合意書는 南北間에 지켜야 할 基本法이고 이번에 合意를 본 附屬合意書는 그 法을 施行하고 執行하는 데 필요한 施行令이라고 할 수 있음.

- 최근 노 대통령께서 中國을 訪問하고 오시면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 統一을 하기 위해서는 韓半島 周邊 強大國과 우리와의 관계가 正常化 되어서 외부적인 울타리를 잘 만들어야 하는데 中國과도 修交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남북간에 같은 同族끼리 서로 마음을 툭 터놓고 對話하고 合意된 사항들을 지켜서 統一을 앞당기는 일만이 남았으며, 이는 우리 모든 國民들의 協調때문에 可能하다고 하셨습니다.
- 世界的인 흐름이라든가 北韓內의 事情을 종합해서 볼 때 가까운 시일 내에 離散家族問題나 核問題도 잘 解決되리라 보며, 이제부터는 어느 정도 기틀이 잡혀서 사회 각층의 積極的인 參與로 北韓과 폭넓은 交流를 해야 할 때임.
- 적극적인 平和를 위해 여러분들 모두가 同參할 것을 바라며 乾杯를 제의함.

#### 金 判 述 顧 問 人 事

- 視察期間동안 江原道地域의 여러분들이 활발하게 活動하시는 모습을 보고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으며 특히 오늘은 3·8선 가까이 있는 統一展望臺에서 南方限界線과 北方限界線이 바로 隣接해 있는 것을 보았음.
- 東·西障壁이 무너지고 새로운 악수가 시작되는 세계 흐름을 볼 때 우리는 民族至上의 統一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생각임.
- 大韓民國의 등뼈가 되고 있는 자리를 지키고 계신 江原道地域 여러분들 모두가 統一의 希望을 가지리라 믿으며 건강과 통일노선에 큰 길이 열려지기를 바라면서 乾杯를 선창하겠습니다.

### 黃秀代 第3政策官

- 顧問 紹介 (가,나,다 순)

### 성기방 江原道副知事 人事

- 오늘 이 귀하고 뜻깊은 자리에 사정이 있으셔서 나오시지 못한 道知事님의 人事말씀을 대신 전해 드리겠습니다.
- 地域人士들에게 統一意志를 새롭게 다져 주시고자 이 고장을 訪問해 주신 崔永喆 副總理님과 統一顧問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 第6共和國 出帆과 더불어 政府가 밀도있게 추진한 北方外交는 동구라과는 물론 구소련과 중공까지도 友邦으로 접목시키는 놀라운 成果를 거두었습니다.
- 東北亞는 새롭게 편성된 구도속에서 協力の 시대를 맞고 있으며 南北韓關係도 相互不可侵 및 交流協力을 구가하는 등 人類歷史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고 있습니다.
- 統一에 대한 성급한 期待와 억측적 論理는 통일의 길에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政府의 統一努力을 성실하게 뒷받침하면서 民族自尊의 바탕위에 民主力量을 結集시켜야 할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 김진배 民統 江原道協議會長

- 이 자리를 같이 한 모든 분들이 國力伸張만이 統一을 앞당기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國民和合과 國力伸張을 위해서 일층 더 힘써 주시기를 바라며 國家發展과 統一을 促進하는 뜻을 모두 담아서 乾杯를 제의합니다.

### 黃秀代 第3政策官

- 각 테이블에 한 분씩 계신 통일고문님들과 만찬을 드시면서 이 나라의 統一에 관한 좋은 말씀을 나눠 주시기 바람.

### (4) 其他 視察日程

#### 가. 11사단 13연대 신병교육대('92. 9. 30)

- 강원도 최정예 新兵教育隊로 태권도 교육시범, 군 보급품 및 내무반 참관을 통한 前方部隊의 實態 把握
- 國軍將兵들의 사기양양을 위하여 慰問金을 전달하고 격려

#### 나. 낙산사('92. 10. 1)

- 신라 문무왕 11년(서기 671년) 의상대사가 創建한 원통보전이 있음.
- 신라 헌안왕 2년(858)에 범일대사가 重建했으나 6. 25 동란때 전소, 지금의 建物은 1953년에 再建한 것임.

#### 다. 통일전망대('92. 10. 1)

- 在鄉軍人會가 중심이 되어 民間企業이 建設하고 運營 管理하는 展望臺로서 맑은 날은 금강산이 육안으로도 보임.
- 統一展望臺 소장의 브리핑에 이어, 李亨根 顧問, 朴贊兢 顧問, 李兌榮 顧問 등이 하루속히 統一이 이루어지기를 祈願하면서 '統一念願의 鐘'을 3차례 打鐘하고, 視察統一顧問들의 이름으로 기념방문패를 증정.

라. 오죽헌('92. 10. 2)

- 신사임당과 율곡 이이 선생이 탄생하신 곳으로 寶物 第165號임.
- 총면적 19,676평에 몽룡실, 구옥동의 기존건물과 문성사, 기념관, 사주문, 자경문, 관리사무소, 정화비, 휴게소 등 총건평 239평에 관리수목 19,500본으로 희귀수종이 많음.
- 1976년에 大統領指示로 보수·정화되었고, 조선 정조12년 1788년 정조대왕의 어명으로 건립했던 어제각은 1987년에 새로 復元했음.
- 視察顧問團의 이름으로 신사임당 사당에 헌화하고 분향함.

마. 죽서루('92. 10. 2)

- 자연암반을 초석으로 하층은 17개 기둥의 길이가 모두 다르며, 상층은 20개 기둥으로 되어있는 독특한 高麗時代 建築樣式으로 조선 태종3년(1403년)에 부사 김효손이 증건했고, 1971년 文化財管理局에서 復元했음.
- 관동8경중의 하나로 보물 제213호인데 숙종·정조의 어제시를 비롯하여 율곡 이이 등 많은 명사의 서액이 걸려 있음.

바. 동양시멘트

- 삼척공장은 단일시멘트 生産工場으로서 그 規模가 세계 최대임.
- 1942년 6월 生産能力 8만톤 工場으로 가동했으나 1990년 11월 제7차 증설공사 준공으로 850만톤으로 확장했고 1993년 2월에 준공예정인 제8차 증설공사가 준공되면 1,100만톤의 生産施設을 갖춘 대단위 시멘트 工場으로 발전될 예정임.



- 동양시멘트 부사장의 공장브리핑에 이어 공장내 핵심통제시스템을 시찰하고 視察 統一顧問들의 이름으로 기념방문패를 증정.

## (5) 綜合 評價

- 江原道地域은 북한과 지리적으로 隣接해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離散家族들이 살고 있는 地域이라 타 지역에 비해 南北關係의 變化에 깊은 關心을 갖고 있었음.
- 議長主催 및 副總理主催 地域人士 招請懇談會는 9월 15일부터 9월 18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된 제8차 南北高位級會談에서 「南北基本合意書」의 和解·不可侵·交流協力分野 附屬合意書 및 南北和解共同委員會 구성·운영에 관한 合意書를 채택·발효시킨지 얼마되지 않은 시기에 개최한 까닭에 統一 促進活動의 조성을 위한 좋은 기회로 평가됨.
- 軍部隊 視察은 新兵들의 훈련모습과 군 보급품, 그리고 내무반 참관을 통해서 前方將兵들의 實態를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며 향상된 軍戰力과 國防의 보루로서의 軍將兵들의 높은 사기에 깊은 信賴感을 느끼게 되었음.
- 동양시멘트 삼척공장 視察은 단일시멘트 生産工場으로서 그 規模가 世界最大라는 측면에서 시멘트산업의 발전상을 한 눈에 볼 수 있었고, 특히 隣近地域 住民에 대한 장학금 수혜 등 다각적인 寄與를 통해 公害産業의 否定的 側面을 補完하기 위한 努力을 느낄 수 있었음.
- 江原道地域은 천혜적인 觀光資源을 대체로 잘 활용하고 설악제 등 民俗行事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韓國의 觀光地域을 세계에 널리 弘報할 기회가 있을 때 그 役割이 크다고 봄.



### Ⅲ. 統一顧問會議 運營成果



### Ⅲ. 統一顧問會議 運營成果

- 統一顧問會議는 '69. 5. 12 大統領令 第3934號에 의하여 國土統一諮問委員會로 發足된 이래, 社會各界를 代表할 수 있는 元老人士들로서 超黨的으로 構成되어 이 분들의 學識과 經륜을 바탕으로 統一에 관한 超黨的·汎國民的 意見을 綜合하고, 國民의 平和統一意識을 鼓吹·宣揚하며 效率적인 統一政策을 協議함으로써 제반 統一政策 樹立의 諮問役割을 擔當하여 왔음.
- 統一顧問會議의 '92年度 主要運營成果로는 統一顧問會議開催, 海外僑民과의 對話活動, 國民과의 對話活動, 統一顧問會議 改編 등을 들 수 있음.
  - 3次에 걸친 통일고문회의 개최시, 南北韓關係 現況, 南北交流協力에 관한 事項, 南北高位級會談 推進方向 등 統一問題에 關聯된 諸般政策事項에 대하여 諮問
  - 海外僑民과의 對話活動을 위한 海外視察을 통해 指導級 僑民人事와의 격의없는 토론으로 우리 통일문제에 대한 올바른 認識을 갖도록 하였음은 물론, 僑民社會의 民族的 同質感과 一體感을 심어주는데 기여
  - 對國民 對話活動을 위한 地方視察을 통해 統一問題에 관한 各界各層의 意見을 수렴하고, 바람직한 統一意識을 鼓吹하는데 기여
  - 統一顧問會議 改編으로는 '92. 9. 1자로 閔寬植, 金玉均, 金 漢, 金致烈, 朴權相, 朴昇, 朴賢植, 尹勤煥, 李季順, 李昌熙, 趙錫來,

趙香祿, 蔡汝植, 崔浩中 顧問등 社會各界를 代表하는 元老 14名을 統一顧問으로 新規委囑하였으며, 제 5대 통일고문회의 의장으로 閔寬植 顧問이 취임

- 이상과 같이 統一顧問會議를 통하여 國民 各界各層으로부터 收斂된 意見 및 統一政策 諮問意見은 統一政策에 관한 主管部署인 統一院의 政策樹立에 직접 활용되는 한편, 主要事項은 大統領 및 總理 등 國政을 擔當하는 최고 責任者에게 報告됨으로써 諸般政策 樹立에 實質적으로 크게 寄與하고 있음.

# 附 錄

1. 統一顧問名單
2. 統一顧問會議規程





# 1. 統一顧問名單

(43명)

(’92. 12. 31현재)

姓 名	電話番號 (自) (事)	住 所 (主 要 略 歷)
閔寬植 (議 長)	797-3333 795-3457	용산구 한남동 11-293, 유엔 빌리지 S-17 (國會議長職代, 民主平和統一諮問會議 首席副議長)
具平會	514-9800 787-6000	강남구 논현동 221-6, 신원빌라 501호 (릭키金星그룹副會長, 現 립키金星商事會長)
權五琦	299-3388 361-0123	성동구 옥수동 220, 한남하이츠아파트 1-1203 (韓國新聞編輯人協會長, 現 東亞日報社副社長)
金命潤	798-7766 732-7790	용산구 서빙고동 241-21, 신동아아파트 11-806 (第5·9代 議員, 統一民主黨總裁職代)
金榮禎	334-2251 234-8181	마포구 성산 1동 255-2 (政務 2 長官, 現 民主平和統一諮問會議 副議長)
金玉均	771-7600	중구 명동 2가 1, 명동성당 (天主教司祭平議會長, 現 天主教서울大教區 總代理)
金玉烈	542-0456 710-9484	강남구 신사동 515-4 (第10代 議員, 淑明女大總長)
金宇中	599-5415 759-2001	서초구 방배동 1-16 (現 大字그룹會長, 現 全經聯 副會長)
金元萬	795-5779	용산구 이촌동 300, 렉스아파트 13-202 (第 4·5·7·8·9 代 議員, 新民黨副總裁)
金 漢	384-0011 841-1232,9125	종로구 평창동 175-3, 신원빌라 B동 2호 (體育部 長官, 現 靑少年聯盟總裁)
金致烈	543-4040 557-3668	강남구 논현동 38-13 (內務·法務部 長官, 檢察總長)

姓 名	電話番號 (自) (事)	住 所 (主 要 略 歷)
金 判 述	388-3311	은평구 불광동 248, 미성아파트 6-407 (第 3·5·11代議員, 保社部長官)
金 賢 子	679-2223 632-2771	영등포구 당산동5가 7, 유원제일 2 차아파트 202-1109 (第11·12代 議員, 現 人間教育學會委員長)
金 炯 琪	336-3785 587-2258	서대문구 연희동 71-9 (大法院判事, 中央選管委員)
朴 權 相	555-3331 319-5090	서초구 서초동 진흥아파트 5동 703호 (東亞日報 編輯人 겸 論說主幹, 時事저널 編輯人·主筆)
朴 東 鎭	563-6628 550-3050	서초구 서초2동 산90, 우성아파트 5동 801호 (統一院·外務長官, 第11·12代 議員)
朴 昇	359-1781 810-2377	은평구 갈현동 316-7 (建設部長官, 現 中央大 經濟學科 教授)
朴 贊 兢	418-4747	송파구 신천동 7, 장미아파트 24-608 (國防部次官, 總務處長官)
朴 賢 植	(0343)44-2233	경기 안양시 관양동 현대아파트7동 903호 (國防大學院長, 治安本部長)
白 善 燁	794-3666 739-3281(2005)	용산구 이태원동 258-97 (陸軍參謀總長, 交通部長官)
徐 廷 柱	584-5214	관악구 남현동 1071-11 (現代詩人協會長, 文人協會理事長)
宋 南 憲	730-9788 720-8480	서대문구 홍제 2 동 90-26 (南北協商民族自主聯代表, 現 民族統一促進會代表最高委員)
慎 道 晷	(042)524-3966	대전 중구 태평2동 393, 삼부맨션 37-52 (統一院長官, 第 3 代 議員)

姓 名	電話番號 (自) (事)	住 所 (主 要 略 歷)
梁 好 民	387-2688 774-9891	은평구 신사동 243-33 (韓國論壇社長, 現 社會科學院諮問委員)
吳 綠 園	962-6186 267-8564	중구 필동 3-26 학교법인 동국학원 (曹溪宗總務院長, 現 東國學園理事長)
尹 勤 煥	553-8270 544-1061	강남구 대치동 910-6 (農林水産部長官, 農協中央會長)
李 季 順	416-2478 735-2640	송파구 송파동 161, 미성아파트 5동 1301호 (政務 第2長官, 現 放送委委員)
李 相 敦	914-3600 738-2453	성북구 정릉동 817-3 (制憲議員·第5·6代 議員, 現 制憲議員同志會長)
李 用 熙	535-8966 233-9351	서초구 반포4동 1101-8, 동광빌라 A-1 (統一院長官, 亞洲大總長)
李 昌 熙	382-1504 577-6184	종로구 평창동 455-7 (駐 멕시코·獨逸大使, 現 國際問題研究所 研究委員)
李 忠 煥	583-7180 773-2880	동작구 사당동 316-94 (第2·3·5·6·9·10代 議員, 新民黨總裁權限代行)
李 兌 榮	392-2280 782-3427	서대문구 봉원동 43-4 (梨花女大 法政大學長, 現 家庭法律相談所長 겸 理事長)
李 亨 根	648-2512	양천구 신정동 329, 목동아파트 14단지 1407-1504 (陸軍參謀總長, 駐 英國·스웨덴·노르웨이 大使)
張 盛 煥	792-9058 362-5704	용산구 서빙고동 241, 신동아아파트 9-1206 (空軍參謀總長, 交通部長官)
鄭 海 永	762-1550 813-2203	종로구 혜화동 26-15 (第3·5·6·7·8·9·10代 議員, 國會副議長)

姓 名	電話番號 (自) (事)	住 所 (主 要 略 歷)
鄭 憲 柱	525-4311	서초구 서초3동 1496-4(37통 5반), 현대 하이츠빌라 302호 (第2·4·5·8·9代 議員, 交通部長官)
趙 錫 來	745-5545 753-0234	성북구 성북2동 3-1 (現 曉星그룹會長, 現 全經聯 副會長)
趙 淵 夏	842-4347	영등포구 신길6동 우성아파트 203-901 (第5·8·12代 議員, 國會副議長)
趙 香 祿	352-7670	종로구 평창동 534-1 (韓國神大學長, 基督教長老會總會長)
蔡 汶 植	796-5335 543-2774	용산구 서빙고동 신동아아파트 11동 1005호 (國會議長, 民正黨代表委員)
崔 浩 中	586-1155 571-1020(226)	서초구 서초3동 1487, 현대빌라 204호 (外務部長官, 副總理겸 統一院長官)
韓 豹 頊	793-6820 234-0220	용산구 동부이촌동 302-64, 장미맨션 18-A (駐제네바·泰國·유엔·英國大使, 現 平和福祉大學院教授)
洪 性 澈	790-2220 234-7125	용산구 한남동26, 유엔빌리지 크로바아파트 C-303 (統一院·內務·保社部長官, 現 民主平和統一諮問會議首席副議長)

## 2. 統一顧問會議規程

制定	1970. 4. 3	大統領令第 4841號
改正	1977. 10. 14	大統領令第 8723號
	1991. 2. 1	大統領令第13269號

第1條(設置) 統一에 관한 超黨的·汎國民的 意見을 綜合하고, 國民의 平和統一 意識을 鼓吹 宣揚하며, 效率的인 統一政策을 協議하기 위하여 統一院에 統一顧問會議(以下 “顧問會議”라 한다)를 둔다.

第2條(機能) 顧問會議는 다음 各號의 事項을 審議한다.

1. 統一에 관한 國民 各界 各層의 意見 綜合
2. 國民의 平和統一 意識을 鼓吹 宣揚하기 위한 方案
3. 統一에 관한 諸般政策 및 方案의 研究 造成
4. 國內 및 國外의 統一促進活動의 造成을 위한 方案
5. 其他 統一과 關聯된 問題로서 國家政策上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事項

第3條(構成) ① 顧問會議는 議長 1人을 包含하여 60人 以內의 顧問으로 構成한다.

② 議長은 顧問中에서 互選한다.

③ 顧問은 學識과 德望이 있는 社會 各界 代表者中에서 統一院 長官의 提請으로 國務總理를 거쳐 大統領이 任命 또는 委囑한다.

第3條의2(任期) ① 顧問의 任期는 4年으로 한다.

② 第1項의 任期中 顧問의 職을 遂行할 수 없는 事由가 發生한 때에는 解囑할 수 있으며, 特定한 團體의 代表者의 資格으로 委囑된 顧問이 그

代表者の職을 辭任한 때에는 解囑된 것으로 본다.

第4條(議長의 職務 등) ①議長은 會務를 統理하고 顧問會議를 代表한다.

②議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議長이 指名하는 顧問이 職務를 代行한다.

第5條(會議) ①顧問會議는 議長이 召集하고, 議長이 그 會議를 主宰한다.

②顧問會議는 定期會議와 臨時會議로 區分하며, 定期會議는 1年을 4等分하여 每分期 1回, 臨時會議는 議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때에 召集한다.

第6條(出席發言) 統一問題에 關係있는 院·部·處의 長은 顧問會議에 出席하여 發言할 수 있다.

第7條(幹事長 및 幹事) ①顧問會議에 幹事長 1人과 幹事 若干人을 둔다.

②幹事長은 統一院 次官이 되고, 幹事는 統一院 所屬公務員 中에서 統一院 長官이 任命한다.

③幹事長은 顧問會議의 事務를 處理하며, 幹事는 幹事長을 補助한다.

第8條(研究委員) ①統一院 長官은 統一問題에 관한 學識과 經驗이 豊富한 者 中에서 7人 以下の 常任研究委員과 150人 以下の 非常任研究委員을 委囑하여 特定事項을 調査研究하게 할 수 있다.

②統一院 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研究委員을 둔 경우에 특히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研究分野別로 專門分科를 둘 수 있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專門分科를 둔 때에는 統一院의 研究官은 所管事項에 關係되는 專門分科의 幹事가 되어 그 庶務를 處理한다.

第9條(手當 등) ①會議에 出席한 顧問에 대하여는 豫算의 範圍안에서 手當을 支給할 수 있다.

②第8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常任研究委員에 대하여는 豫算의 範圍

안에서 手當과 旅費를 支給할 수 있다.

③ 第8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非常任研究委員을 委囑하여 調查研究를 하게 한 때에는 豫算의 範圍안에서 手當과 旅費를 支給할 수 있다.

第10條(秘密保護) 顧問會議의 顧問과 研究委員은 業務遂行上 知得한 秘密을 漏泄하여서는 안된다.

第11條(運營細則) 이 令에서 規定한 것 以外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顧問會議의 審議를 거쳐 議長이 定한다.

#### 附 則

①(施行日) 이 令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經過措置) 이 令 施行 當時 國土統一諮問委員會 規程에 의한 諮問委員과 研究委員은 이 令에 의한 國土統一顧問會議의 顧問과 研究委員으로 任命 또는 委囑된 것으로 본다.

#### 附 則(77. 10. 14 大統領令第8723號)

①(施行日) 이 令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顧問의 任期에 關한 經過措置) 이 令 施行 當時의 顧問에 대하여 第3條의 2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 附 則(91. 2. 1 大統領令第13269號)

①(施行日)이 令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 以下 省略





## 92년도 統一顧問會議 結果報告書

---

1993년 1월 30일 인쇄

1993년 1월 31일 발행

발행처 통일원

인쇄처 웃고문화사

---

